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해주시기에 무한 감사드리며 그 응답에 힘입어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8월 26일 (토) 제 164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개인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로 확대해야!

바나리서치, 미 성인 1,015명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도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살아왔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가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는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 또 국가나 세계 정세를 놓고 기도한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진다.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들 즉 간구, 중보, 신앙 등등이 나와 있고, 다양한 언어나 행동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바나리서치는 최근 미 성인 1,0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중 79%가 지난 석 달 동안 한번 이상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Silent and Solo: How Americans Pray). 그런데 대부분이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기도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실천 행위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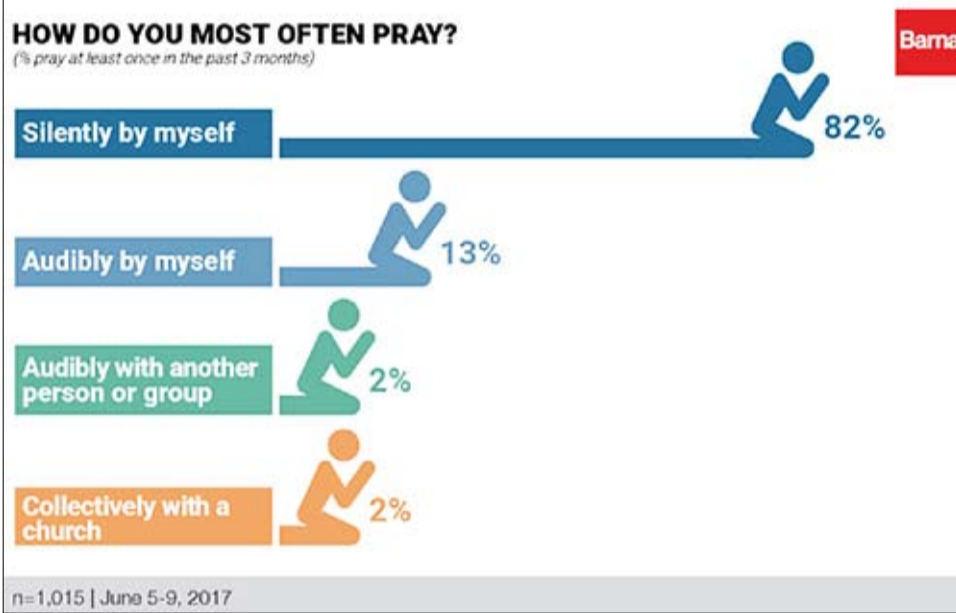
82%가 속으로...내용은 “감사(62%)”가 압도적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온상이다. 이러한 문화 트렌드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었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에게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신앙 형태로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 미국인들(94%)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82%는 “속으로” 기도한다. 불과 13%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룹 단위로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는 경우는 각각 2%에만 그친다.

기도에는 색깔이 있을 정도로 혼자서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경우는 흑인(27%), 히스패닉(16%), 그리고 모든 유색 미국인들(20%) 그러나 백인은 8%에 불과하다. 또한 교단이나 신앙 전통에 따라 입을 열고 기도한다. 즉 남부 지역들의 카리스마틱 전통을 가진 응답자들이 17%로 북동부보다 거의 2배다(9%).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소리를 내어 간구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많다(25%).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미국 성인들의 기도는 바로 “감사(62%)”가 압도적이다. 좀 더 부연하면, “가족과 공동체의 요구들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61% 그리고 “위기에서 인도하심”이 49%이다. 그런데 학력이 낮을수록, 즉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기에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가장 보편적이다(49%).

다음으로, 47%는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



개인적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희망적이며,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갈 책임이 영적 리더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38%)에 비해 엘더스는 건강 문제에 대한 기도가 많다(68%). 그리고 년 중 5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은(52%) 구체적으로 의료 비용 총액과 건강한 삶을 꾸려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42%)보다 높다. 삶의 스타일을 보다 건강하기 바라는 경우는 시골 지역이나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55%로 도시에 사는 미국인(46%)보다 높다. 도시의 경우,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파

켓, 병원이나 약국에 많다. “사죄와 용서”가 43%로 그 다음이다. “사죄와 용서”를 바라는 기도는 “감사”만드시 기도해야한다는 느낌이나 충동으로(43%) 시작된다. 71%의 복음주의자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하루 일정이나 여행에서의 안전”이 41%인데, 놀라게도 또 다시 피부색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3면으로 계속>

“소그룹의 문을 닫아라!”

리더십저널,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 목사의 소그룹 운영핵심원리 소개

애틀랜타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는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northpoint.org). 실제로 12개월에서 24개월마다 배가하는 소그룹들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통해 8,000명이 넘는 성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것은 바로 담임인 앤디 스탠리 목사를 통한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교회 환경을 만드는 것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 됨과 서로 간의 하나 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관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Creating Community: Five Keys to Building a Small Group Culture).

스탠리 목사는 전략적으로, 소그룹의 문을 잠시 닫아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에 더 많은 새생명이 찾아오도록 소그룹의 문을 활짝 열어두 부족할 판에, 소그룹의 문을 닫으라니 이 무슨 소리냐고 의문이 든다. 맞다! 교회는 항상 새 가족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그룹의 문은 잠시 닫아둘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말이다.

닫힌 소그룹은 예측 가능한 환경조성...2년 정도 기간 바람직

①구성원 고정 ②분명한 목적 제시 ③확실한 행동규범 지침 공유

소그룹 전략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소그룹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소그룹을 진행할 때 문을 닫으라는 것일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소그룹 전략에서 ‘문을 닫으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소그룹의 문을 닫으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소그룹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소그룹 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이다.

열린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기에 활발함, 생명력, 열

린 마음, 교제 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역으로 끊임없는 방해와 산만함, 예고 없음, 불안함을 의미하는 기도 한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지 않는다. 오히려 집중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소그룹의 문을 닫는 것은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문이 열려있으면, 그 소그룹의 멤버들은 금세 불안해하고 추진력을 잃으며 주의력 결핍에 빠지게 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채플린 임상목회 박동서 목사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담수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특/ 별/ 기/ 고 배현찬 목사 16면
--	---	--	---	---



Celebrating 40th Anniversary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살ют한인장로교회



40 Years Ministry for the Lord
나 성군 목사 성역 40년
Rev. Sung Kyun Na



www.cpcclt.com

First Asian Church in Charlotte (Aug. 28, 1977)

Aug. (Sun) 27, 2017 5:00 pm

Come Join Us to Celebrate The First Asian Church in Charlotte for 40th Anniversary!
Wonderful Music Program including World known Opera Singers Hymnal singing, and enjoy authentic Korean Food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PCA)
(704) 529-0900 or (704) 877-6642
*축하 화환은 일체 사양합니다

장로장립 : 성기태, 전승현, 진태형, 전오현
권사취임 : 진재경, 박운주
원로장로추대 : 전기현, 전태현
장로운퇴 : 정기수, 조동식



전승현 성기태 진태형 전오현 진재경 박운주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재플린 임상목회

2000년을 지켜온 신앙 - 콥트인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재플린)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꼭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지요"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 컴퓨터 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날에 사망한 환자들의 명단을 출력하는 일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습관입니다.

다. 환자가 사망한 줄 모르고 병실에 갔다가 간호사로부터 전날 밤 아니 그날 새벽에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망 환자 보고서를 뽑아서 그 유족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날 방문할 환자들을 위해 채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채플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짧게 감사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병원을 떠납니다.

오늘도 사망환자 명단을 출력해보니, 어제 방문하고 기도해드린 두 환자가 밤사이 모두 소천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집트 이민자 1세였는데 놀랍게도 콥트교도인이었습니다(주: Coptic 혹은 줄여서 Copt라고 불리는 이집트 내의 기독교인들로서, 약 9백만 내지 1,500만 정도가 회교 국가인 이집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집트 인구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집트에 7천으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에 의하면 콥트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로 외곽지대 스투키 하지장 근처의 제한된 구역에 반강제로 몰려 살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회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는 모든 불이익을 당하며 극빈층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여년간 콥트교도들은 대대손손 믿음을 지키며 감당하기 힘든 온갖 차별과 핍박을 이겨내온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콥트교도들의 교회에 폭탄 테러 등이 자행되고 있음은 외신을 통해서도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환자가 임종이 다가오자 남편은 세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콥트 교회의 사제의 방문을 요청했고 카톨릭의 종부성사 같은 예식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는 타 주로 출타 중이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신 한 천주교 신부들이 마지막 성례를 베풀어 주려고 하였으나 정중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워낙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민족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남편 되는 분 혼자서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수차례 방문해서 진분도 있고 기도를 받고 떠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은 이미 아내의 소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남편을 만나서 콥트 교회 사제는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콥트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친구처럼 저로 하여금 죽음을 눈앞에 둔 부인과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예식을 인도해 드리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일가친척들에게 환자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직접 전화연락이 왔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증거 했고, 연로하신 가족들을 위해 환자의 조카는 통역까지 해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의 축복과 기도를 받으며 환자는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당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바구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이름과 기도의 말을 적은 돌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영어로 적은 한 작은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I will see you soon in heaven."

tdspark@gmail.com

'헬리콥터 부모' vs '잔디깎기 부모'

컨버세이션, 영국 스완지대학 에이미 브라운 교수의 현세대 자녀양육 노하우 보도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여름철 할인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수감사절, 연말연시 세일시즌과 함께 미국 내 3대 세일시즌인 백투스쿨 시즌은 7월말부터 9월초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최고의 세일기간이다. 특히 일부 메이저 업체들은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슈튜던트 디스카운트'를 통해 의류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개혁을 맞아 필요한 물품들을 현명하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한번은 자신의 자녀양육 스타일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히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과연 아이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부모들의 "백투패러딩"이 시작돼야 한다.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따라서, 영국 스완지 대학 에이미 브라운 교수의 자녀 양육법을 '백투스쿨' 시즌에 맞춰 소개한다(Helicopter or lawnmower? Modern parenting styles can get in the way of raising well-balanced children). 부모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도 닥쳐오는 힘든 상황들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 노하우가 담겨있다.

온화하고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한 부모의 개입은 물론 자녀의 발달에 유익하다.

많은 중년 세대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할 때 길고 무더운 여름철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에 문 밖으로 우리 등을 떠밀며 저녁 식사 시간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종종 어린 동생들까지 떠맡아선 가지 말라는 곳까지 나가 방황하다가 사고를 치기도 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날 무렵엔 평생의 승리, 훗터, 기억이 쌓였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분명 향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아이들처럼 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기어오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아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러다가 도를 넘어 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배우기도 한다.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3분의 1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납치 위험은 어떻게 할까? 혼자서 밖에 나가 놀면 유괴당하지

good enough parenting 이론: 부모가 사랑을 주고 자극적 환경 제공하면서 한계 설정하고 실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음

불과한 걸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970년대 부모의 개입과 감독은 오늘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일을 보는 동안 아홉 살짜리 아들을 공원에서 놀게 한 죄로 체포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부모 개입 수준의 증가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증거를 살펴보자.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요즘엔 실내에서 노는 게 일반적이며 3분의 1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아본 적이 없고 1970년 이후 어린이가 집 밖으로 나가 놀 수 있는 거리가 90%까지 줄었다.

자녀양육이 아이들 안전 측면에서만 달라진 건 아니다. 부모들은 이전 양육방식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을 더 많이 한다. 전에는 어처구니없어 보였을 방식으로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에 따라 '헬리콥터'와 '잔디깎기' 두 가지 자녀양육 스타일이 부상하게 됐다.

헬리콥터 부모는 이름이 말해주듯 아이 주위를 맴돌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항상 자녀 가까이 머물며 (보통 필요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달려들어 가르치거나 돕고 보호할 태세를 갖춘다.

잔디깎기 부모는 자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며 앞길을 매끄럽게 닦아놓



고 걸림돌을 없애준다. 두 유형 모두 다 큰 자녀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한다. 예컨대 자녀가 입사 면접에서 탈락할 때 회사에 항의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린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자녀가 힘든 상황을 제 힘으로 벗어날 필요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든 일에는 중도가 있다. 자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하면 경험·자신감·네트워크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후원과 과보호 사이에는 중요한 경계선이 있다.

아이 놀이를 통해 적절한 모험을

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 발달에 필수적이다. 위험한 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1970년대 처음 집계 이뤄진 뒤로 어린이 유괴 위험은 대략 0.0005%의 확률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름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이방인보다 아는 사람에게 유괴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크다.

위험 외에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개입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의 발달에 좋지 않다. 우리의 무덤고 어렵잖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지루해 하는 게 정상이고 유익하다. 따분함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는 반면 끊임없는 인퐁은 비록 창의성 교육이라 할지라도 상상력을 무디게 한다.

아이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며 도와주는 것이 역효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testimonial from a former student.

항공운항과 남.여,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B.S in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

항공학사 학위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국제 항공 조종사 과정에 여학생 환영

항공학과 특징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미국연방정부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항공학 학사학위 및 FAA 국제조종사 면장

MBA 경영학석사과정
전공 분야: 글로벌비즈니스 리더십, 공공정책과 행정,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학력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학 박사학위
전공: 교육리더십, 조직리더십, 경영리더십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관계없음)

Midwest Degree 학위과정
학사-경영학, 항공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석사-MBA- 리더십,
MA- 음악, 신학, 영어교육, 상담, 교육,
박사- D.Min-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 박사
DL- 리더십학박사- 교육, 경영, 조직리더십

학점, 학위취득 방법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당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본교소개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1 주년을 맞은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i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개인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로 확대해야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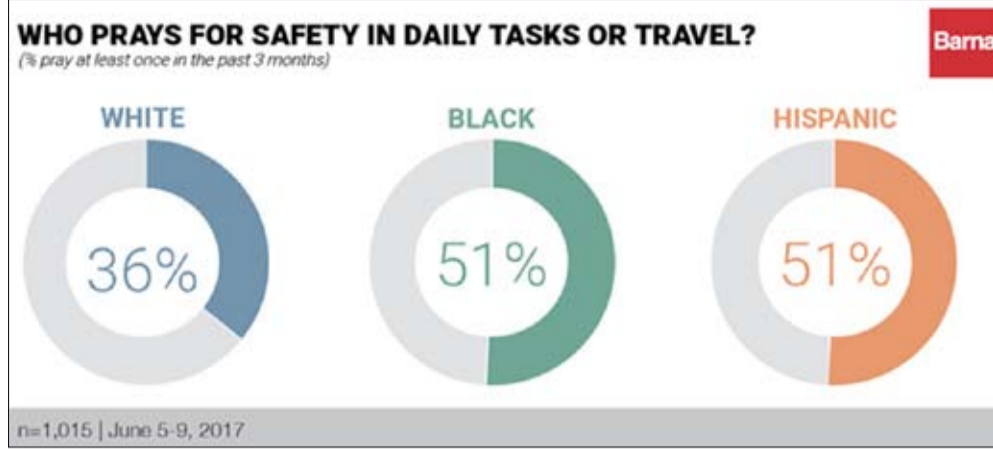
36%의 백인에 비해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51%로 상대적으로 "안전"을 위해 유색 인종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평화나 살림"과 "주

신 음식들에 대한 감사"가 37%, "중보기도 요청"이 34%, "국가와 정부를 위한 기도"가 24%, "지구촌 문제들과 부정의"가 20%이고, "잠자기 전 기도"가 12%였다. 그러나 스톤은 미국인들의 기도가 "개인적 영역"에서만 멈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혼자서

고 있는 록산나 스톤은 "기도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영적 실천 행위"라고 이번 리서치 결과에 대한 운을 띠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스톤은 미국인들의 기도가 "개인적 영역"에서만 멈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혼자서

속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소그룹,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공동체적 기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번 설문 결과는 보여준다. 사람들이 개인적이긴 하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닌 집이건 직장이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줄 책임이 영적 리더들에게 주어진다. 바로 공동체적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나가야 한다.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기도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됐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문을 닫아라!"

(1면에서 계속)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소그룹 환경', 즉 '문을 닫은 소그룹'이란 무엇일까?

첫째, 예측 가능한 참가자들. 다시 말해서, 소그룹의 구성원을 고정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누구나 드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떠나가는 백화점이나 문의센터가 아니다. 소그룹은 한 가정의 구성원만 드나들 수 있는 안방, 식탁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간혹 손님을 초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그곳은 예측가능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 모임이 진행되도록 인도자와 핵심멤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그룹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마

셋째, 서로 관계를 맺는 행동규범이나 지침을 확실히 공유하게 한다. 우리 소그룹의 에티켓이 무엇인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선을 넘나드는 관계는 오히려 참가



치 피곤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의 기대치를 항상 충족하는 것이다.

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그 그룹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닫힌 그룹은 그룹 참여자가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험에 대한 기대는 역으로 참가자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마치 가정에서 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가정의 위기 시에 자녀가 중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장성한 자녀는 가정의 새로운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소그룹을 닫아라는 전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소그룹은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언젠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듯, 소그룹의 문은 멤버들이 성장하는 동안만 '잠시' 또는 '얼마간' 닫혀 있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숙한 소그룹에는 2년 정도의 '약속된 닫힘'이 적당하다. 이 2년의 시간동안 소그룹은 서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스스로 배가하라'는 도전에 임하게 된다.

'헬리콥터 부모' vs '잔디깎기 부모'

(2면에서 계속)

부모가 수시로 개입하는 아이들은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구제받는 아이는 자신감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한편 혼자 노는 아이들은 난제에 직면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갖고 닦는다.

이 같은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학생 대상의 조사에서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우울증과 불안 리스크가 더 커졌다. 반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부모가 허용한 학생들은 나르시시즘과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다. 불안감은 좋지 않지만 인생이 만만하리라는 기대와 자만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온화하고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한 부

모의 개입은 물론 자녀의 발달에 유익하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든든한 후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리고 유괴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차량 통행은 증가했으며 자유와 위험은 적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당한 균형점을 찾기가 실제보다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소아과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우즈 윌콕은 '적당한 자녀양육(good enough

parenting)' 이론을 설파해 왔다. 그는 부모가 사람을 주고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한계를 설정하고 실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 때 자녀 양육의 결과가 가장 좋았음을 입증했다.

어쩌면 윌콕 박사는 길고 무더운 여름을 돌이켜 생각하며 회고하는 향수에 빠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것이 자녀를 안정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는 합당한 전략이라고 믿는 전문가가 많다.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므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는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은 볼 수 없어서 자연현상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간 안에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을 어제도 오늘도 하신다.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현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고 억울한 죄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은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이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앞에 형들이 나타난다. 형들은 요셉은 일찍이 애굽이라고 하는 불행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자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시간 안에 요셉의 생애가 있었고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판 요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거 한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 죽게 될 때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증거 한다. 즉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번식하여 그곳에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을 증거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믿고 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동일한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 안에서 이루시는 능력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요 만약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시간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신다. 우리 목회자는 살아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뿌리고 믿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목회현장에서 전능하신 시간 안에서 믿음을 품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알고 보고 있는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인 줄로 알자. 신비한 것을 깨닫자.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내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되자.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 지금도 들뜬 풀을 자라게 하고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시간의 비밀을 깨닫자.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범사에 믿음을 가지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 목회현장에서 쫓겨 경험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자.

우리가 수고하는 목회현장에서, 이렇게 살아 있는 시간 안에서 고민하고 불안하고 멍에를 메고 살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 하심을 알고 누리 고 살자. 나의 이웃들을 나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칭찬 듣기를 사모하며 살자.

sangdkim@yahoo.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葬)

나성빌라델비아교회 원로목사이시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전 총회장, 가주노회 노회장,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초대이사장 및 총장으로이민사회와 교회를 섬기신 고 조천일 목사님께서 2017년 8월 1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심으로 장례예배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葬)으로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입관예배: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집례: 조웅철목사(가주노회 노회장)
설교: 유재일목사(KAPC 총회장)
축도: 김상덕목사(KAPC 전 총회장)
장소: Glendale Forest Lawn Church of Reccessional
1712 S. Glendale Ave. Glendale CA91205

하관예배: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4시
집례: 최중현목사(KAPC 서기)
설교: 이정현목사(KAPC 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 총장)



(고 조천일 목사)

유가족

부인: 조(박)예신 사모

장녀: 성실

차녀: 성혜

손자: 성현

사위: 김민석

증손자: 대선

손녀: (박)유리

증손자: 재혁, 준혁

손녀: 선혜, 신희

차남: 영호 자부: (이)승희

손녀: 현실

손자: 재명, 손자부: (박)상희

증손녀: 예신

손사위: 박성화

증손녀: 애린

장남: 동호 자부: (송)용실

차남: 영호 자부: (이)승희

손녀: 선혜, 신희

손자: 진우, 민우

장례위원회 위원장: 유재일목사

위원: 이익관, 고응보, 장영춘, 이희봉, 윤종호, 이근신, 천성덕, 이영섭, 김경진, 황은영, 이용걸, 전덕영, 김상덕, 송찬우, 문성록, 강기봉, 김남수, 엄영민, 정관일, 김영수, 고택원, 박제임스, 김선중, 김현인, 명치호, 문성록, 박기억, 박은일, 박형기, 송정식, 오영석, 유진상, 이기섭, 이영희, 이재덕, 이종태, 장의한, 전대주, 전태준, 정성연, 정해창, 조은철, 조웅철, 주병렬, 지근우, 표세홍, 한일철, 한재현, 허준준, 홍성우, 황상하, 목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웅철목사

위원: 고승경, 박덕근, 김요섭, 김학천, 송상현, 양수철, 윤세창, 이성주, 이정남, 이준우, 임명진, 임진태, 정진구, 홍형희, 황규영목사



목회서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보면 두 갈래 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은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넓고 안일한 길이라도 끝이 멸망으로 간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 엘리엇은 핏트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에코도르 아우카족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명이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마지막 창에 찔리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유복자로 자란 짐 엘리엇의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순교한 그곳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짧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살롯장로교회)



무 부끄러울 뿐이다. 오로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진짜 온유가 무엇이고 진짜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야 한다.

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명마의 판단 여부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온유도 이런 절제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

대한 열쇠와 격동을 인하여 번민함으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입술만 움직였다. 슬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의 책망의 순간 한나의 온유한 그리고 유순한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이며 온유의 표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오늘날처럼 리더십이 강조되는 때도 없는 것 같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다. 목사에게 주신 위치와 책임 때문에 목사의 리더십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해석될 수 있으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본래 타고난 성품은 아니다. 그냥 좋은 사람, 범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 지닌 성품이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늘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둘째, 자기연단 혹은 절제이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칭의와 성화의 병행이어야 하는 것처럼 온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부정이요 자기 연단인 절제이다.

셋째, 프라이드의 완전 제거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보니 자기가 완전히 낮아져 자신의 무능무식 가난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셔야 됨을 알고 철저히 낮아진 심령이다.

어떻게 그렇게 영안이 어두우십니까? 백성의 아픔을 그토록 무감각하게 다루시며 잘못 판단하여 상처를 덧내십니까? 그렇게 하고도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계셔야 합니까? 등등 얼마든지 항의하고 도전할 수도 있었겠으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성전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으나 그녀의 아픔이 무서운 동을 하게 할지 모르는 때에 아무도 공손하게 온유하게 대답한 것을 보면 감탄이 터져 나온다.

“리더십이 바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오랜 강단 경험과 목회 경험 그리고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목회후보생들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범주에는 필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믿는다.

확한 사람보다야 온유의 훈련이 쉬울지 모르나 온유는 반드시 제2의 성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생겨지는 성품이다.

하를 내신 적이 없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때에도 마치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취급 당하셔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리더십에도 전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그들을 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사용하거나 대적하거나 역을 함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하지 않으셨는가?

을 믿을 때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철저히 인식하며 고백하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내주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미안한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한다 할 때 믿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1. 온유가 해결이다

좀 어색하고 합당치 않아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을 보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 나를 본받으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일생으로 본을 보이셨으며 그분이 소유하신 것처럼 탁월한 리더십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첫째, 중용이다.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 전혀 반응 없는 것의 중간이란 말이다. 곧 나에게 대하여 나의 유익에 대하여 또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웃을 위하여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 사회와 정치를 볼 때에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자기 유익과 상관없으면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너

를 받을 때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철저히 인식하며 고백하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온유의 또 다른 표현이다.

2. 온유의 결과는 무엇인가?

평을 기업으로 받는 것 곧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내세 천국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땅위에서도 통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대인관계의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기도를 답으로 사무엘을 낳아 나라를, 온 백성을 구하고 그들의 마음 곧 온 땅을 얻고 더 나아가 도탄에서 구함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개혁장로회대학및 신학대학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직영 개혁장로회대학및 신학대학원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은 아래와 같이 총장 이취임식을 가지고자 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장 이취임식

이임총장: 황은영 박사 (제3대 총장)

취임총장: 이정현 박사 (제4대 총장)

초청인 : KAPC총회장 유재일목사, 이사장 양수철목사 및 이사 일동, KAPC 개혁장로회대학및 신학대학원

- 설 교: 유재일목사 (KAPC 총회장)
• 일 시: 2017년 9월 9일(토) 오전11시
• 장 소: 빛과 소금의 교회, 21519 Menlo Ave., Torrance, CA 90502, 310-749-0577; 626-675-8010

영원을 잃어버린 죄인

성경의 첫 부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의 길을 말한다. 아니, 회복의 길로 오라고 외친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자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강권적으로 초청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회복의 책이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끝은 회복된 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영원한 삶이다. 인간의 회복을 말할 때,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처럼 성경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잃어버린 존재로 보는 것이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든

말한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행복이다. 이를 성경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며, 이 때 인생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교제관계 회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제의 형통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 죄로 인해 교제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았음이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의 말씀하신 바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 처음부터,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를 본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되는 것을 본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러, 죽어도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하여 영원한 안식을 잃은 방랑자(restless wanderer)가 되었다. 참된 예배자의 승리가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과 예배로 거룩함을 우선순위에 정립해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영화보고 놀아주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어깨동무한다고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의 구별과 회복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될 때,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

세상을 한번 이겨보고자 자신을 아무리 분석하고 분해 조립해 보아도 답이 없음을 안다. 인생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상실된 인생, 회복의 도구

자로 보기도 한다. 병이 있어 견 강하게 살지를 못하고 환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설명한다. 이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른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적 인간의 모습은 잃어버린 자요, 병든 자요, 죄인인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될 수 없음을 말한다. 수련으로 혹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변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본질의 변화와 본질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데 어떻게 회복을 말하겠는가?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말한다. 창세기 처음 부분에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본다.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임을 규정한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 의미와 기쁨이 있다. 회복된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얼굴이나 몸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며,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님과 동행한다. 교제한다고 성경은

죄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름이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 버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죄의 삶은 사망임을 증명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육체가 되었다고 한다. 예배소에서는 아예 죄 아래 죽었다고 말한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온다. 쫓겨났으니,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예배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범죄한 인간에게 일한 하나님의 인자(Unfailing Love)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교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이 후로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다. 이처럼 상실된 인간의 회복을 말할 때, 예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상실된 인생의 회복의 도구이다.

예배와 영원한 안식의 실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나오는 길을 말했고 아벨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가인은 똑같이 하지 않았다. 비슷했음 뿐이다. 비슷하게는 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예배의 영광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러야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다.

세상에 대한 승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예배의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방종하며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도간의 교제에도 긴장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가르쳐질 수 있을까? 제한된 영역이다. 정말 온전히 그 영혼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는 교회 앞에서 몸을 추스릴 것이다. 교회 앞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며 살 것이다. 교회 앞에서 절제할 것이다.

자식보다 어린 신학생에 대해서도 그 언어의 사용을 주의하는 장로님을 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게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복된 존재들이다. 그리하여 그 예배의 영광이 그의 삶을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며 세상에서도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허용된 것을 본다. 인생은 약하다. 구별되어 가르쳐야 본별력 있게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가스펠 가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귀에 여덟 개의 장식품을 박아놓고, 옷 입는 것도 엉터리임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는 어느 특정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가 트리트 개사 곡으로 찬양을 만들어 세상 춤을 흉내 내면서 집회하는 것을 본다. 이 노래가 유행인지 어느 교회 구역발표회를 보면 이것을 카피해서 목회자들이 팀을 맞춰 트리트 풍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는 데 심장이 답답하다. 한국의 어느 유명기도원의 철야 집회 영상을 보라, 2세들에게 성전에서 만나니 춤을 추도록 부추기는 것을 본다.

사단마귀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게 한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내면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내면을 아무리 살펴보고 좋아해본들 답이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결자표임을 은혜가운데 확인할 때, 세상 앞에서도 강해진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거기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만나야 한다. 그 깊은 만남이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 예배에 승리가 세상을 이길만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죽기 살기로 예배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입니다. 과거에는 칼빈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요즘은 그 말이 적고 교수님들을 통해 개혁주의란 말을 자주 듣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A에서 Lee 전도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단어는 장로교 목사님들의 입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이란 단어를 설교에서 자주 듣습니다. 개혁주의(Reformed)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문병호 교수의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소논문에서 말한 것을 소개합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말은 자주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개혁주의는 신구약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모토로 집약이 된다. 오직 성경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다 들어 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신학적이라고 여겼다. 그의 신학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에서 머문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참 신학(Theologia Vera)과 참 경건(Pietas Vera)을 엄밀하게 추구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이름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개혁주의가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동의어...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모든 것의 불변가치로 여겨

이 고유한 기원과 근원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주의가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참 근본을 교회의 서고 넘어서는 조항으로서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혁주의의 이러한 보수적 근본적 성향을 16세기말 이후부터 칼빈의 후예들 즉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개혁주의 전통주의(Reformed Orthodoxy)에서 발견된다고 문 교수는 말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신학자 필만(Paul T. Fuhrmann)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의 진정한 유산은 실로 구조가 아니라 방법-사람, 그리스도, 믿음, 세계, 성경, 종교, 삶 등 모든 것들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God's Perspective)에서 파악하고자 애쓰는 방법에 있다”고 한 것은 개혁주의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 곧 하나님의 자기 세계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life-view, world-view). 그래서 개혁주의는 그 이념이 하나님 자신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사상을 모든 것의 불변하는 가치로 둔다. 개혁주의는 온역신학에 그 근거를 두고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는 성경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보다 성경적으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Reformanda)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혁신학의 전망”이라는 책을 쓴 합동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재성 교수에 의하면 “개혁신학에 바탕을 둔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일찍이 평양신학교를 세워 구한말에 목사를 배출한 서양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평양신학교를 만든 마포삼열(Samuel Moffett)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경건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들의 신앙출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온 정교도들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지는 광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6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7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7년 12월 17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담임 장준원 목사
www.NLChicago.org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newlifechicago@yahoo.com
T.847-359-5200 F.847-359-8409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브루(Bru)



서 부 브루 족 은 태국 국경 부근에 거주 하는 반면 동 부 브루 족은 라 오스 와 베 트남의 국경 부근에 거주한다. 이 두 종족은 같은 언어(브루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은 되지 않는다. 실제 때때로 같은 마을 안에서 서로간의 방언이 매우 다른 경우도 있다. 브루어는 몬-크메르(Mon-Khmer) 언어군의 카투어(Katuic)계에 속하는 언어다. 일부 브루족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브루어)와 라오스어를 둘 다 사용한다. 브루족은 오늘날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남부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던 대(대) 크메르 제국의 후예들이다. 9-13세기에 흥왕했던 크메르 왕국은 타이족과 베트남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그 세력이 쇠하게 되었고, 약 400년전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라오스 북부의 비옥한 땅에서 브루족을 남쪽으로 몰아냈다. 근대를 거치면서 라오스는 수많은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진 땅이 됐고, 주변 강국들 즉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경쟁적으로 라오스에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이런 혼란한 정치 상황과 반복되는 전쟁, 식민 역사로 브루족의 전통 생활양식이 파괴됐다.

삶의 모습
브루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wet-rice)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관개(灌漑)기법을 이용한 계단

식 논에 "베어버리고 태우(slash and burn-화전농법)" 자신들의 전통적인 농사법 대신, 점차 라인들로부터 배운 농업기술을 활용하게 됐다. 농부들은 주로 물소나 황소가 끄는 쟁기로 땅을 고르며, 아주 적은 수의 농부들만이 현대적 농기구를 사용한다. 산악지역이나 고지대에 사는 대다수의 브루족들은 아직도 "화전농법"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모자란 가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브루족들은 수양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또 일부는 상인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브루(BRU)"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산"을 의미한다. 아마도 브루족 거주지역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브루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다. 대부분 브루족의 마을은 강과 시내의 언덕(독, 제방)을 따라 위치한다. 촌락의 형태를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 "공동가옥(community house)"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다른 집들이 원형을 그리며 자리 잡고 있다. 대말 위에 지어지는 각 집들(고상식 가옥)은 확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진다. 첫 번째 방은 손님을 맞는 데 사용되며, 동시

에 이상승배를 위한 사당의 역할을 한다. 집집마다 화롯불이 있어 식사를 준비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브루족 사람들은 라오인들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옷이나 문화, 사회조직과 같은 것들이 라오인들과 매우 흡사하다. 단지 브루족 여성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전통적 하얀색 스카프 같은 몇몇 특징들만이 유지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오늘날 브루족에게 직물, 염료, 담요, 모기장 등 생필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브루족은 자치 운영이 되긴 하지만 한 골짜기에 제한된 소규모 촌락을 형성해서 생활한다. 각 촌락은 "차오 무웅(chao muong)"이나 군주의 통제를 받는데, 일반 부족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브루족이 라오스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들을 가진 경우는 아주 극소수다. 브루족 사회에서는 최고 연장자인 남성이 촌락의 대표가 돼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결혼은 일부 일처제로 지켜지며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서 최고 연장자인 남성의 권위 아래에 복종한다. 브루족의 민속 예술과 문학은 매

우 잘 발달돼있다. 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솜씨 있게 잘 다룬다. 악기연주가 노래와 이야기(narrative readings)와 함께 어우러지기도 한다.

신앙
사실상 모든 브루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종교의식을 행하는 토속신앙을 지킨다. "조상 숭배"는 선조들에게 성공, 풍요, 지혜와 보호 등을 구할)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모든 씨족들에게는 공동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생쌀, 물, 깨진 사발 등을 놓아 죽은 조상들을 대접한다. 만약 선조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질병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브루족은 또한 자연 속에 깃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으며, 각 촌락마다 특정한 "수호 신"이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브루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 미국 전투기들이 투하한 지뢰와 폭탄이 무작위로 흩뿌려져 있는 곳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들관이나 밭에 나가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농부들은 팬이질을 하는데, 폭탄이 팬이에 걸려 폭발하게 되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들에서 뛰놀다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곤 한다.

라오스 폭탄제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손길이 브루족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 이동 교육팀이 이런 외진 지역까지 방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폭탄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폭탄제거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들에서 일할 때마다 항상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폭탄의 위협으로부터 신의 보호호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폭탄제거 방법에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 원조 특히 인공보철(의족 등)과 물리치료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도 이러한 의료적 필요들을 충족점으로 삼아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독교 의사 선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텍사스 화장실법, 주의외서 시한 지나 폐기

대표적인 성소수자(LGBT) 차별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미국 텍사스 주(州)의 이른바 '화장실법(bathroom bill)'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다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CNN은 16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지사와 덴 패트릭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한 '상원 법안 3'이 주 하원에서 공화당 내 의견 양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공전되다 시한인 전날 자정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조 스트라우스 주 하원의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공립 교고에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사용할 때 학생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위생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비슷한 내용의 화장실법을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아 최근 법률을 재개정할 적이 있다.

텍사스 주에서도 화장실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자, 텍사스 소재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AT&T의 랜델 스티븐슨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리처드 템플턴 등 텍사스 기업인들은 "화장실법 입법이 텍사스로의 인재 유치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벗 지사에게 반대 서한을 보냈다.

또 화장실법이 텍사스 주 관광객 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조디 윈터호프 부회장은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번 입법이 좌초한 것"이라며 "텍사스는 온 좋게도 차별을 지향하는 목소리보다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장실법 입법을 주장해온 의원들은 성 정체성을 중시하는 화장실 사용 관행이 여성과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실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9년만의 개기일식 미 대륙 열광

"달이 태양을 덮고 있습니다(Moon blots Sun)." 미국 대륙 전역이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태양계의 슈퍼볼'로 불린 99년 만의 개기일식(皆既日蝕·total solar eclipse)이 21일 오전 10시 15분(미 태평양시간·한국 시간 22일 새벽 2시 15분) 미 서부 태평양 연안 오리건 주(州)부터 시작됐다.

상주인구 6천200명의 시골 마을 마드리스에는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천체의 신비가 만들어낸 우주 쇼를 지켜봤다.



CNN, ABC, N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과 미 항공우주국(NASA)은 생중계로 '세기의 일식'을 전했다.

AP통신은 "1918년 이후 99년 만에 대륙의 해안에서 해안으로 이어진 개기일식이 96-113km의 넓이로 미 대륙을 관통했다"며 "이번 개기일식은 역사상 가장 많이 관측된, 그리고 가장 많이 촬영된 천체 현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기일식 현상이 나온 오리건 과학산업박물관의 짐 토트 관장은 "쇼가 막 시작됐다. 오늘은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와이오밍 주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한 천문학자 마이크 오리어리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앞으로도 보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일식은 태평양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에 막 지나자 오리건 주 마드리스 등 주요 관측 지역에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시작됐다.

주변에 어둠이 깔리면서 관측 지역에 몰린 인파에서 잇달아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NASA의 알렉스 영은 "인간의 달 착륙과 비견될 만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식은 14개 주를 관통하며 4천200km에 걸쳐 1시간 33분 동안 이어졌다. 오리건 주 링컨시티부터 와이오밍 주 캐스퍼, 일리노이 주 카본데일, 테네시 주 내슈빌을 지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는 동부 시간으로 2시 47분에 개기일식을 관측했다.

사우스일리노이 주의 쇼니 국립립이 가장 오랜 시간인 2분 44초 동안 개기일식이 관측됐다.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은 2045년 예정돼 있지만, 이번처럼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대륙을 대각선으로 완전히 관통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기일식이란 우주 공간의 궤도 선상에서 태양-달-지구 순으로 늘어선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천체 현상을 말한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매달 일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인 황도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인 백도의 각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부분일식은 자주 일어나지만, 개기일식은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

개기일식은 대부분 대양에서 관측되며 대륙에서 볼 기회는 흔치 않다. 특히 북미처럼 큰 대륙 전역을 관통하며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것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미 전역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8년 6월 8일 워싱턴 주에서 플로리다 주까지 나타난 개기일식 이후 무려 99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1979년에 부분적으로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적이 있다.

텍사스대, 남부연합 동상 4개 밤새 철거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 이후 미 전역에서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남부연합(Confederate) 기념물 철거 바람이 부는 가운데 미 텍사스대학이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스 내 남부연합 동상 4개를 전격 철거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대는 전날 늦게 내려진 그레고리 펜브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날 새벽 오스틴 캠퍼스 내 메인 물에 세워진 남부연합 장군 로버트 E.리 와 앨버트 시드니 존슨, 존 례이건, 텍사스 전지사 제임스 스티븐 호그의 동상을 모두 철거해 교내 브리스크센터로 옮겼다.

밤새 진행된 철거 작업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지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앞서 펜브스 총장은 "버지니아에서 목격한 소름 끼치는 증으로 남부연합 동상이 현대 백인우월주의와 네오나치즘의 상징이 됐다"는 점을 확실해졌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는 남부연합 상징 철거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다.

마크 피터슨(22)은 AP통신에 "유럽에서 건너와 이 나라를 건설한 선조의 역사, 우리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를 증오한다. 그건 우리의 신조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대로 철거를 주장한 마이크 로우(37)는 "역사를 지운다는 명분은 허접투성이"라며 "이 동상은 그저 흑인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백인 우월성을 상징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살러츠빌 사태 이후 미국 내 각지에서 남부연합 기념물이 철거되거나 훼손되고 있다. 더럼카운티에서는 동상의 목에 밧줄을 걸어 넘어트렸고 볼티모어에서도 밤새 상징물 4개가 트럭에 실려 갔다.

미 주요 대학 가운데 듀크대학도 이미 낙서로 훼손된 캠퍼스 내 로버트 E.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 공립교생 10만명, '주거불안 홈리스'

지난 2015-2016년 학기 기준으로 미국 뉴욕시의 초·중 공립학교 학생들 가운데 10만 명이 주거가 불안한 '홈리스(homeless)'로 조사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6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어린이·빈곤·홈리스 인스티튜트'는 렌트비 상승과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감축, 주 정부의 렌트지원 프로그램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시적으로라도 보호소나 차량, 모텔 등 임시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친척, 친구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홈리스'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보호소에 거주하는 학생은 3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어느 시점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7명 가운데 1명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나 쇼야모야 정책 책임연구원은 "모든 학교 교실에서 2-3명이 홈리스"라고 말했다. 홈리스 학생들은 1년에 평균 2번의 전학을 하고, 홈리스 초등학생들은 1년 전체 출석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88일간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퇴할 가능성, 학습 부진에 따라 특별 수업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리스 3-8년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숙련도는 동료 학생들보다 20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진핑 정권 기독교탄압, 문화혁명 이래 최악"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탄압이 더 심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교세가 커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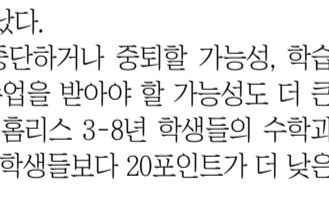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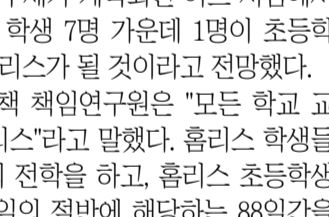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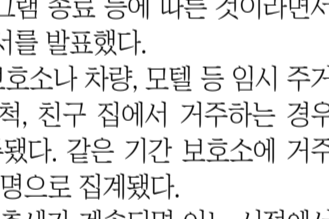
반(反)중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의 설립자 밥 푸(중국명 푸시추·49)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순교자의소리 본부에서 중국정부의 종교탄압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2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강연 및 토론회도 갖는다.

이에 앞서 17일 국민일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교회와 기독교인 탄압이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이래 최악"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과 관심을 요청했다.

푸 목사는 편지에서 "중국은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적 특징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교회와 십자가 파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 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다.

펍파사레는 2015년 643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20.2% 증가했다.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147.6% 늘었고, 이 중엔 1800여명의 교회 지도자가 포함됐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재산은 몰수됐



다. 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을 금지했으며 신앙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사례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2000여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푸 목사는 "저장성 정부가 건축법 위반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교회 십자가를 강제로 떼어냈다"며 "교회가 공산당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적시했다.

푸 목사는 20세기 초반 야편에 찌들었던 한 중국인이 기독교를 접한 뒤 회심해 위대한 사상가가 된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후 지하교회를 만들어 성경모임을 계속했다. 1996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돼 수개월의 징역형과 가택연금형에 처해진 그는 중국의 산악제한 정책으로 아내가 강제낙태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신학을 공부해 목회자가 됐고 6년 만인 2002년 텍사스주에서 '차이나에이드'를 설립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교인은 2800만명이다. 정부가 공인한 삼자(三自)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다.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합칠 경우 1억명(인구의 7%)을 넘는다.

네덜란드서 예수 조각상 도난·훼손 잇따라

최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귀금속으로 제작된 십자가 위의 예수 조각상을 훔쳐 가거나 이를 훼손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가톨릭계가 예수 조각상을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대체할 것을 긴급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동부 림뷔르흐주에 있는 도시인 루르문트의 가톨릭 교구는 산하 성당과 시 당국, 개인들에게 십자가 위의 예수 조각상을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대체할 것을 조언했다.

이 같은 권고는 작년에 도난당하거나 반달리즘에 훼손된 예수 조각상과 성모마리아 조각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각상을 도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구 측은 설명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조각상 중에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교구 측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예수상이 아직도 여러 곳에 걸려 있다"면서 "당분간 예수 조각상을 플라스틱 모형으로 교체하면 도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쿠르드계 독립투표에 잇단 경고음

터키가 연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국민투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블뤼트 차우쇼를루 터키 외교장관은 16일 국영 TRT헤베르TV와 인터뷰에서 "술한 어려움을 겪을 그 나라(이라크)에서 (쿠르드자치정부)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우쇼를루 장관은 이어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터키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베키르 보즈다오 부총리도 앞서 15일 쿠르드자치정부의 국민투표가 이라크 헌법에 어긋나며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앙카라에서 열린 훌루시 야카르 터키군 총사령관(대장)과 이라크군 합참의장인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소장 의 회담에서도 쿠르드자치정부 국민투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김성락 목사는 자립하는 교회를 추진했다. 본 교회는 노회 분담금 15불을 감당하였고, 1939년 2월 본 교회 재정 독립을 결정하고 4월부터 헌금의 1/10을 기본 적립금으로 예치하기로 가결했다.

이즈음 본 교회 교인 100여명은 나성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700명 이상의 동포 중 불신 영혼을 전도하기로 한다. 우선 1939년 11월에 춘추 심방을 결정하고 목사와 장로가 교인 심방을 시작했다. 1940년 5월에는 일주일 동안 '전도 특별기도회'를 실시하였고, 1942년 3월에는 먼 구역에 권찰 1인을 두기

공부를 실시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성경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8년 추수감사절을 기하여 유학생 남녀 18명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도왔다. 1941년 3월 한 달간 내한선교사 빅터 W. 피터스 목사를 초빙하여 매주 오전 11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7시 반에 사경회를 실시했다. 1943년 5월에 하리아동 성경학교를 개최하였고 이후 매년 하리아동성경학교를 진행했다. 1949년 2월에 청년회를 조직하고, 월 셋째 주일 예배는 영어로 청년 주일로 지켰다. 그 해 3월 중고등

친 그의 선교 사역을 축하하고 해외 선교를 고취시켰다. 1940년 5월, '장로교 부인 전도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이화목을, 고문에 그리어 여선교사가 섬겼고, 회비는 매월 25센트로 임회금은 50센트였다. 그 해 1월에는 고국 재해를 돕는 구제금을 보냈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 청도 신학생에게 10불의 장학금을 우송했으며, 다음해 7월에는 상해 한인 기독교회에 예배당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보냈다. 1946년 9월, 재대한하는 호에이스 불기엘 선교사 부부의 전별회를 마련하고 해외선교를

생하는 동포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6.25사변이 일어나자 데이빗 김 등 6명이 입대했다. 청년부인봉사회는 피난민을 위해 의류와 식량을 수집하였고, 한국 구제위원회와 연합하여 미국사회에 들어가 구제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여전도회는 수집한 의류를 손질하고, 남자교인들은 미국 군함편으로 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한국고아 후원금함'을 만들어 모금한 169불 50센트를 1952년 1월에 보냈고, 고아 다섯 명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쟁미망인과 가족이 기속하는 '다비다 모

33. 김성락 목사(1903-1989)

김선두 목사 장남으로 1927년 도미, 1933년 Ph.D 받고 귀국 1937년 1월 나성한인장로교회 청빙받아 그해 11월 예배당 건축

김중수 목사가 사임하면서 나성한인장로교회는 차기 목사의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예배당 건축을 경험한 분,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한 분 그리고 젊은 분 등 네 가지였다.

당시 본 교회 당회장이었던 나성노회 총무 그랜 W. 무어 목사는 나성에 거주하는 윤산은 선교사를 만나 본 교회 차기 목사 청빙을 의논하였다. 윤산은 선교사는 190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한 조지 S. 맥킨 선교사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5년 겨울에 도미했다. 그는 김성락 목사를 추천하였다. 이에 본 교회는 1936년 12월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김 목사의 청빙을 결정한다.

김성락 목사는 1903년 4월 26일 평양에서 김선두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평양 숭덕학교 보통 고등과를 나와 숭실 중학교 숭실 대학을 거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그는 아내를 한국에 두고 1927년 도미하여 파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933년 10월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김성락 목사는 귀국한 그 달에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친이 목회하던 신암교회를 섬겼는데 1935년에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그는 목회 이외에도 숭실대학에서 교목과 교수를 역임했고, 평양 여자성경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았다. 그런데 그는 신사참배거부교수직에서 물러나 교회만 돌보며 수년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청빙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즉시 수락했다.

1937년 1월 김성락 목사는 사모 윤종옥과 운곡, 형곡, 리곡 그리고 두 달된 정숙 등 4명 자녀와 함께 평양을 떠나 그 해 2월에 나성에 도착한다. 첫 번째 도미가 유학을 목적으로했다면 두 번째 도미는 선교

가 목적이었다. 나성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한 그의 첫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였다. 이는 본 교회의 나아갈 목표였고, 그의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성락 목사의 당면 과제는 예배당 건축이었다. 본 교회는 기존의 구입한 대지 옆의 또 다른 대지를 1,700불로 구입하고 건축비 15,000불을 책정했을 때 교인들은 50불 혹은 100불을 건축 헌금으로 정성껏 드렸다. 김 목사가 백인교회를 76회나 순방하며 보조를 호소했을 때 버몬트 54가의 백인교회는 500불을 헌금했고,



김성락 목사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한 '소년회'는 교회의 앞날을 짊어질 열성과 같은 학생이라 하여 '키 클럽'이라 불렀고, 성경공부와 더불어 운동에 치중하여 '코리아 타이거' 농구팀을 조직했다. 1951년 7월에는 종교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교회 발전을 목적으로 애나 루 그리어 전 내한 여자선교사를 임명했다. 1956년 1월 세 주일학교 교실 그리고 영어실을 갖춘 교육관 건축을 계획하였다. 이는 그가 목사가 사임한 후인 1959년 3월 봉헌식을

교육했다. 그 해 6개월간 한국에서 휴가를 가진 김 목사는 도미 후 그 해 말 한국구제위원회를 조직했다. 1947년 1월, 한인 동포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눈 메리 스트리트 부인의 75회 생신 잔치를 거행하면서 내지 선교 정신을 함양했다. 1948년 2월, 중국의 방지일 선교사에게 100불을 보조했고, 그 해 5월 서울 영락교회 고아원인 보리원의 건축비로 1천불을 헌금했다. 1949년에는 청년부가 봉사회를 조직하였다. 1953년 대구 근방의 노곡동 교회에 임종숙 전도사를 파송하고

자원에 재봉기 한 대를 보냈다.

1957년 5월 김성락 목사의 근속 20주년 축하식이 성대히 거행한 이듬해 6월, 김 목사는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사면한다. 라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년사는 "30대의 청년 목사로 와서 50대의 초로기를 지난 목사로서 교회를 떠난 것이다. 그는 교회의 7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은 우리의 목사이요 또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1958년 9월 김성락 목사는 서울에서 재건된 숭실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1964년 11월까지 약 4년간 재임했다. 그리고 도미한 그는 1978년 2월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초대학장으로 부임하였다. 1986년 이후 그는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1989년 8월 3일 김 목사는 미국

1957년 근속 20주년에 퇴임, 서울 숭실대 학장으로 4년간 재직 태평양전쟁 때 군목으로 종군 • 1978년 미주장신 초대학장 맡아



나성한인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쿠퍼 웰러 부인은 3,000불을, 밀튼 스트리트 부인은 2,000불을 헌금했다. 1937년 11월 28일 추수감사주일에 개토식을 한 후 다음 해 4월 16일 부활주일에 임당하여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고, 그 해 5월 4일에 헌당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로 가결하고 목사와 함께 권찰이 심방하여 교회 부흥을 꾀했다.

또한 김성락 목사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위한 교회 조직에 앞장섰다. 1937년에 장년반, 청년반, 소년반 그리고 유년반 등 4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주일 예배 후 성경



라성한인장로교회 김성락 목사 목회 20주년 근속 축하회

거행하여 기독교 교육의 장을 넓혔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김레스터 목사를 배출한다.

김성락 목사는 전도와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1938년 5월, 77세의 마포삼일 박사 부부를 초청하여 40여 년간 전 생애를 조선에 바

1959년 자립할 때까지 보조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인 중심의 군대가 조직되자 김성락 목사는 군목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이원규 등 교회 청년 7명이 전사했다. 1944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 중국 중경에서 전쟁으로 고

나성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향년 86세)하여 장례식은 나성 선한사마리아인교회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damien.sohn@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됩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넷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성경도 신앙 (38)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라)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
청교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과 아이를 연결해주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교도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그녀의 생활은 남편과 자녀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하는 일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성경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조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복종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할지니라”(엡5:22-24). 청교도들에게 있어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나 힘에 겸손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태도임을 확신했고 이를 따라서 자신

안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남편은 아내를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한다. 남편의 가슴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슴에 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아내를 자신의 심장고 같이 귀하게 간주함으로 부부의 평등을 실현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청교도들은 남편에게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하였다. 남편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요청함으로 가정의 폭력을 방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결혼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간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창2:24), 성경의 말씀을 따라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

로 잡을 수 없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절, 25장 6절).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혼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결혼을 하였지만 성적으로 불구인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② 결혼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생활하고 있을 때 ③간음한 경우 ④ 근친결혼이었던 경우 ⑤결혼 상대방이 결혼 전에 한 쪽의 식구와 성 관계를 가졌을 경우 ⑥버림받고 3년 이상 장기간 별거한 경우 ⑦1년 이상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부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청교도들의 이혼관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신앙의 내용을 따른 이혼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나 학교 교사가 아무리 선행과 경건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받는 해악이 큰 것이다”라고 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존 플라벨은 “잘못 가르친 자식들로 인해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했던가”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경고하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중심되어 자녀를 양육하되 모범을 보임으로 양육하게 하였는데 대해 오늘의 기독교 가정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불순종을 징계해야 한다
토마스 풀러(Thomas Fuller)는 “자녀들에게 매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때로 사용하여 그 부모들을 대하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하였고,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은 “때로 부모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때 부모에게 불순

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를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징계하신다”고 경고했다.
헨리 스미드(Henry Smith)는 “다윗은 자식을 화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선하게 양육 받으면 부모의 원수를 쏘는 화살이 되지만, 잘못 양육 받으면 도리어 부모를 쏘는 화살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징계와 양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존 플라벨(John Flavel)은 “만약 부모들이 거룩한 행실로 자식을 가르치는데 게을리 한다면 마귀가 그들을 죄로 길들이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양육을 태만히 하는 부모에게 경고하고 있다.
존 플라벨은 “땅이 잘 경작되지 아니하면 쉽게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쉽게 욕이나 헛된 맹세나 거짓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고 경고함으로 현대의 자녀교육에 대해 방관적이 되기 쉽고 태만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복부 대동맥류 65세 이후부터 빈도 높아져

많은 질병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성인병도 그렇지만 복부에 생기는 대동맥류도 65세 이후부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대학교수인 김모 씨는 우연히 정기 검진 중에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다. 지름은 3센티미터 정도로 작은 편이고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을 침범하지 않아서 당장 위험은 없지만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대동맥 조음과를 해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동맥류는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저절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도 들었다. 이때부터 김 교수는 몸속에 마치 폭탄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었다고 이렇 바에는 미리 수술하는 것이 고민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왔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통과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혈관으로 대동맥을 통과한 혈액은 복강 내의 장기들에 혈류를 공급하고 하지로 전달된다. 대동맥류란 대동맥 벽이 약해져서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으로부터 오는 압력이 높아져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된다.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흉곽 내에 생기면 흉부대동맥류, 복부에 생기면 복부 대동맥류라고 분류한다.

복부 대동맥류는 60세 이하에서는 거의 없지만 65세 이상에서는 6-10퍼센트 비율로 발견된다. 주로 흡연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담배를 끊게 되면 그 위험이 줄게 된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5배가량 더 흔하고 관상동맥이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많다. 60세 이상의 형제 중에 동맥류가 발견된 가족력이 있다면 본인에게도 대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의 일반 원칙은 수술이다. 문제는 수술 자체가 대동맥전체를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는 수술할 때 위험이 따른다. 또 대동맥류는 터지지 않으면 큰 증상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대동맥류의 크기와 자라는 속도다. 지름 3.5센티미터 이하의 작은 대동맥류는 터질 염려가 거의 없지만 지름이 5.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6개월 동안 0.5센티미터 이상 커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지름 7센티미터 이상의 복부 대동맥류가 5년 이내 터질 확률은 75퍼센트 정도다

대동맥류 수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술로 대동맥 내 혈관 안에 스텐트라고 불리는 관을 집어넣어서 비교적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개복수술의 위험이 아주 큰 환자 위주로 이 방법이 시술되고 있다.

아내를 자기 심장같이 여기는 부부평등 실현하고 가정질서 세워

‘자식은 화살’ ... 방관 태만한 기독교회 가정에서 자녀교육 대안 제시

의 위치와 사명에 충실했다.
청교도에 있어 아내는 잠언 31장 10-31절이 묘사하는 현숙한 아내였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아내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스스로 나서서 일한다. 또한 친절하고 슬기로우며 신뢰성이 있고 쾌활하며 근면하며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아내는 자기의 지성과 육체의 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손이 미치지 않는 가난하고도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였다.

3) 부부관계
청교도들은 부부관계를 종속적이 아닌 평등한 관계로 보았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남편은 아내로부터 행복을 취하기 때문이다. 헨리 스미스(Henry Smith)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를 남편의 발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내는 섬기는 일이 본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돕는 일이 그 본분이다. 만약 아내가 머리가 되어도 안되고 발밑에 엎드려서도

였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독신 우위 사상에 반대하면서 결혼 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였고, 부부 생활이 단순한 생육의 수단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관계로 대해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였고, 이로 인해 남존 여비 시대를 성경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함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대해 기독교회의 가정의 부부들이 닦아야 할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가정의 봉공인 이혼에 대해
청교도들은 부부가 근본적인 의무를 서로 등한시 할 때 이혼을 허락함으로 가정의 붕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간음이나 음행을 한 것이 결혼 전에 발견될 때에는 결백한 편이 그 약속을 깬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 간음 행위가 있을 경우는 결백한 편이 법에 호소해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혼 후에는 범법한 편을 죽은 자로 간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당하다고 하였고, 부부 중 하나가 완강하게 가정을 포기하려 하고 교회나 행정관리가 바

5) 부모의 위치-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태도와 경고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한 권위와 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의 체계를 세우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주께서 명령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3:20).

주님의 명령을 떠나 위대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기쁨을 산출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온전한 가정의 치료가 가능하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방면에 대해 엄격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자녀를 훈육하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확실하게 규정하였다.

가) 자녀들이 불행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존 플라벨(John Flavel)은 “부모는 자식들의 모든 영적인 불행의 도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첫째는 출생에 의해 둘째는 모방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했다.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은 이에 덧붙여, “만약 자녀들의 학교나 교회에서 복 받기를 바라다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이나 불경건 또는 악행과 같은 타락의 실상을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회서신

신앙에 중도는 없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엘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세기의 기도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 18:21)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중도는 없을까요? 깊이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 앞에 중도는 없다. 중국의 유교의 경전에 4서3경이 있습니다. 즉 4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 3경은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중용(中庸)이란 중요한 철학사상이 있는데, "극단을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過不及) 중도의 길을 걸으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뜻 깊은 철학사상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는 중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all), 목숨을 다하고(all), 힘을 다하여(all)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12:29-30, 신6:4-5). 전체가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라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 1%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100%, 모두 (All)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숭

배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중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2. 구원에는 중도가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지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대속(Atonement)의 피를 쏟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으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요14:6)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타협과 인기에 영합하는 종교다원, 종교통합주의적인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으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데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3. 복음에는 중도가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거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중도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

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8),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2:16)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도 믿고, 율법, 즉 행함도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와 이단사설에 미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저주 받을 일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가 LACC에서 1000여명의 한인 및 아시아인 구직자들이 뜨거운 구직열기를 보이며 성황리에 열렸다

1천명 참가...연령제한 없어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 및 LA 경찰국 등 36개 미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대규모 '제1회 아태계 정부기관 취업박람회'가 18일 LA 시티 칼리지(LACC)에서 1000여명의 한인 및 아시아인 구직자들이 뜨거운 구직열기를 보이며 성황리에 열렸다.

50-60대까지 구직자들까지 몰려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참가국 USA 산하 비영리단체인 하이어링 파운데이션이 주최한 이번 정부기관 취업 박람회는 연방 및 주정부, LA시와 카운티 산하 기관들인 LA경찰국(LAPD), FBI, 미 공군(US Air-Force), 미 해군(US Navy)을 포함해 총 36개 미 정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1,000여명에 달하는 한인 및 타인종 구직

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케이 고 FBI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는 "FBI에서 선발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범법사항이 없는 자여야 한다. 또한 친인척 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지원서를 작성할 때 거짓진술이 들어갈 경우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부관련 기관에 선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스페셜리스트는 "FBI 요원 외에도 240개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있다"며 "미 정부 기관에서도 굳이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언어의 장벽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정부기관 취업에 나이제한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이날 행사에는 50대 이상의 한인 구직자들이 눈에 띄었으며, 자녀들의 정부기관 취업을 위해 자녀대신 취업정보지를 받는 한인들도 많았다.

(박준호 기자)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가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제로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Harmony and Friendship' 주제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 타인종 참여

2017 라크마 여름콘서트가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제로 19일 저녁 7시30분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특별히 타인종들

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한인들로 구성된 라크마챔버콤파이 어(지휘 윤인상 교수)와 대만인들로 구성된 엘리트콤파이어(지휘 클리 프양)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선

사했다.

윤인상 교수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레퀴엠 대관식 미사 C 단조 K427을, 클리프양 지휘로 비제 카르멘을, 그리고 린 후왕 뮤직디렉터(엘리트 음악재단) 지휘로 Awake(Worlf Premiere)를 두 합창단이 연합으로 불렀다.

또 소프라노 신선미, 스테파니 존스, 김희우, 메조소프라노 딩핑, 테너 오위영, 황효진, 바리톤 지현식, 베이스, 바하겐 호벤츠, 보리스 마르티노비치 등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아르메니아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뮤지션들이 LA의 한여름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윤인상 교수의 지휘로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조춘 시인 시집출판 기념으로

소망소사이어티에 소망우물 후원금 1천불 전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지난 8월 17일 조춘 시인으로 부터 소망 우물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조춘(본명: 정춘자) 시인은 최근 "장미를 다듬으며"라는 시집을 출판한 기념으로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우물에 후원금을 기증했다.

조 시인은 "지난 5월 10일, 소망소사이어티 교육교문인 그레이스 김 선생님의 소망 독서모임 특강에 참여해 소망의 여러 가지 활동을 알고 감동하게 됐다"며 "출판 기념으로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의 정성 어린 후원금이 아프리카의 우물 파는 일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라며 후원금 1,000달러를 보내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조 시인은 숙명여고,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하다 1981년 미국에 이민 와 오픈저카운티의 실비취에 살고 있으며, 2006년, '21문학'으로 등단한 후 '시와 사람들의 동인으로 미주 시인협회회원, 미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사진 11면]



이기철 LA총영사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지회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KOWIN 미서부지회 회원 30명 초청

이기철 LA총영사, 세계대회 참가자 격려

이기철 LA총영사는 8월 17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미서부지회 회원 30명을 관저에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말 군산에서 열리는 KOWIN 세계대회 참가자를 격려했다.

또한 동 세계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될 KOWIN LA지회와 샌프란시스코 지회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날 이기철 총영사는 8월말 임기를 마칠 KOWIN LA 지회의 오은영 회장과 미서부지회 이혜심 담당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4 columns: 학부, 학과, 학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 학과, 학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3 입학시험: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부흥회: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5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동부교계 기사판



“미래목회 리더십” 공개강좌

뉴저지 한인목사회(회장 박근제 목사)가 주관하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뉴욕&뉴저지 공개강좌 및 박사과정 소개가 9월 9일(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열린다.

담임목사 청빙

버지니아 윌네이션스교회(담임 홍원기 목사, PCA)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중언어 능통, 합법적 미국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경배와찬양 사역자 청빙

킨즈한인교회가 금요찬양예배와 주일예배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신실한 찬양사역자를 찾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와 신앙간증문. 서류를 킨즈한인교회(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찬양사역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어린이 담당 목회자 청빙

주사방장로교회(KAPC)가 파트타임 어린이 담당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으로 신실하며 어린이 사역에 열정이 있는 영어 구사자(한국어 구사 우대). 서류는 이력서(사진 포함), 목회철학 및 개인간증서, 추천서 2명.

“The Joyful Women’s...” 정기 연주회

“The Joyful Women’s Choir of New York” 제 6회 정기 연주회가 9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후러심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지휘 최현욱, 소프라노 이희정 백성화, 피아노 이세리가 출연한다.

“예배와 무용” 제 4회 정기 연주회

뉴욕필그림신교무용단(총연출/안무 최윤자)이 주관하는 말살신교단과 우리사모잡은손을 후원하는 “예배와 무용” 제 4회 정기 연주회가 9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킨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다.

물품 무료 증여

1년 정도 사용한 깨끗한 퀸사이즈 매트리스와 플라스틱(다리는 철제) 의자 40여개 무료 증여한다. 픽업 장소는 뉴욕 베이스타이드.

은혜기든양로원서 광복절기념 나눔 이벤트

비영리 문화단체 이노비가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뉴저지 은혜기든 양로원에서 한인 어르신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뉴욕나눔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뉴욕나눔재단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과와 한국무용을 준비하고 봉사자로 참여했다.

콩쿨 우승에 빛나는 테너 이성은이 처음으로 음악감독을 맡아 소프라노 윤혜린과 피아니스트 이윤지, 한국무용가 김윤진의 참여로 애국가와 한국가곡, 동요 등을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며 광복절을 기념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 연락처는 (212)239-4438, 이메일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KAPC 뉴욕노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성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지난 21일부터 2박3일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글렌우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이라는 주제로 박용규 목사(한국 총신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으며 각 박사는 3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노회장 허윤준 목사는 참석 노회원들을 환영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목회와 사역에 힘쓰시는 중에 시간을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마음껏 쉬고 즐기는 기회를 나누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개회예배는 정진수 목사 찬양인



KAPC 뉴욕노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도, 사회 운영한 목사, 설교 허윤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 목사는 창세기 22장 1-12절을 본문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개회예배 후 이어서 박용규 교수가 집회를 인도했다. 박 교수는 마

태복음 4장 23-24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새벽예배는 김성국 목사가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본문으로 “성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했으며 박용규 목사가 오전과 저녁으로 강론했다.

점심 후에는 게임 및 자유시간을



뉴욕장로연합회 제52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다민족선교대회 앞서 노방전도

뉴욕장로연합회 제52차 조찬기도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52차 조찬기도회가 8월 17일 오전 8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송윤섭 장로 사회로 기도 흥대순장로, 설교 황영송 목사(차별화된 삶, 눅7:1-10), 특별기도, 헌금특송 장로연합회중앙단, 헌금기도 신철승 장로, 다민족선교대회 현황보고 황규복 장로, 광고, 회장인사, 축도 황영송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기도는 임형빈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장석면 장로가 “본교회 뉴욕수정교회를 축복하소서”, 박성범 장로가 “본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의 성장과 회원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뜨겁게 기도

고,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했다.

이어 이계훈 장로의 식사기도 후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나눴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예년과 같이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계획한 대로 노방전도를 나가겠다고 광고하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같이 나가면 성령께서 인도해주시길 믿는다”며, “노방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4개 국어로 된 전도지와 다민족선교대회 전단지만 준비돼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이노비 관계자들이 이벤트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가졌다.

박용규 교수는 오전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행11:19-30), 저녁에는 “종교개혁 정신과 한국교회 개혁”(롬1:16-17)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예수님께서 목회하신 그대로 목회하는가?”,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 복음이 아니라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러 준비하여 전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하며 이웃사랑에 힘쓰고 있는가?” 등 목회의 기본정신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며 강의를 인도했다.

마지막 날 새벽예배는 임영건 목사가 인도했으며 폐회예배는 이규본 목사가 시편 153편 1-3절을 본문으로 “형제를 연합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10개 교회 1천불씩 총 1만불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신청 접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미자립교회 특별후원 신청을 접수한다.

뉴욕교협은 8월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공지하고 “교협에 속한 회원교회들 가운데는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 교회들이 많다”며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몇몇 회원 교회들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통해 이민 목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자 한다”고 지원 의도를 밝혔다.

교협은 “목회 현행이 극히 어려운 미자립 회원교회들 중에서 10개 정도의 교회를 선정해 단회에 한해 1,000달러씩 금반 회기에 특별후원을 한다”며 특별후원 신청 대상 교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①본 교회협의회 회원 교회 ②회원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에도 적극 협조한 교회 ③성인 출

석교인 30명 미만, 년 예산 10만달러 미만 규모의 교회 ④부동산(예배당, 사택 혹은 기도원 등)을 소유하지 않은 교회 ⑤1만 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가 없는 교회 ⑥재정적 특별 후원의 필요성이 있는 교회다.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1통 ②최근 연속 4주 주보 원본 혹은 사본 ③최근 3개월 은행 Statement 사본 ④후원요청 진술서(특별후원이 필요한 목회상황 설명 포함) ⑤1인 이상의 회원교회 추천서 1통이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특별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상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증경회장 1인과 임원으로 구성된다.

신청접수 마감은 8월 28일(월) 오후 5시(교협사무실 접수)이며 심사 및 발표는 9월 7일(목)에 한다. 수여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총신교회 3대 안재현 목사 부임

뉴욕총신교회 새 담임목사로 안재현 목사가 부임했다. 김택택 목사는 2개월간의 안식일을 가진 후 10월 15일 목회에서 은퇴하고 안재현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김택택 목사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30년 전 뉴욕총신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고 한요한 목사가 개척한 뉴욕총신교회는 2005년 12월 한요한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김

택택 목사가 담임목사 취임했으며, 2006년 6월 위임식을 열었다.

김택택 목사는 재임 기간 동안 교회내적으로는 교회를 증축했으며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고 교회외적으로는 미전도종족 선교와 차세대 연합선교에 힘썼다.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안재현 목사는 킨즈장로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뉴욕장로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또 나야칼리지와 비블리컬신학교(BTS)를 졸업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100세 시대, 커피 통해 선교사역 동참 선미나스트리 커피선교세미나, 강사 손문성 선교사

선미나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행복한커피학교 대표 손문성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핸드드립커피 오리엔테이션 및 시음회를 19일 오후 4시에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선미나스트리와 GMAN선교회에서 실시하는 황금기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리더급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손문성 선교사는 "13년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돼 대한기독교교감리회 소속 4개 지방에 순회사역자로 사역해왔다"며 "인도네시아는 92%가 무슬림인데 이슬람권 젊은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현지 파송된 미국선교사가 카페를 통해 그들과 접촉점을 삼는 것에 인상을 받게 됐으며 커피가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임을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커피를 배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선교사는 "한국의 60대는 아직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이다. 그들을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면 선교현장은 풍성해질 것"이라 말하며 "노년의 시기에 비즈니스 등을 활용한 선교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간 바리스타 등 커피에 대해 배운다면 커피를 통해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100세 인생 시대에 최적화된 선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손 선교사는 "중국의 경우 젊은이들이 성공의 척도를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삼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커피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인 만큼 이 지역에서 커피를 통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복음전파

이들이 성공의 척도를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삼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커피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인 만큼 이 지역에서 커피를 통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복음전파

가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손 선교사 강의를 마친 후 커피 로스팅부터 핸드드립커피 만드는 방법을 실습했으며 이날 모인 20여명의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커피를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손문성 선교사는 오는 11월 초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주지역에 커피학교를 열어 커피를 통한 선교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dreambelt2525@gmail.com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한인학부모들을 위한 독서·작문 지도법 세미나에서 수주 오 교육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학부모위한 독서&작문 지도법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 개최, 강사 수주 오 박사

한인가정상담소는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인 학부모들을 위한 '독서 & 작문 지도법'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는 전 3개 초등학교 교장 수주 오 교육학 박사다.

재외동포재단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 박사는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를 한인 부모들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실제로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어떠한 독서 및 작문 교육이 이뤄지는지 등을 강의했다.

또 지난 15일 LA통합교육구의 전 학교가 개학한 이후 열린 세미나인 만큼 새학기 학부모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독서 교육 관련해서 수주 오 박사는 "좋은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

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 책 재미있니?'라고 묻는 대신 '이 책은 왜 재미있니?'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재미있니?'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면서 "아이에게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아이의 독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카니정조 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취학준비 세미나 개최 당시 참석했던 어머니들이 감사했던 수주 오 박사의 강의를 더 듣기 위해 준비했다며 "박사님께서도 가까이 응해주시고 한인 학부모님들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인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한인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선미나스트리 커피선교를 위한 핸드드립커피 오리엔테이션 및 시음회에서 참석자들이 실습하고 있다



LA 신포니에타 콘서트가 20일(주일) 저녁 7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 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용재 지휘자, 연주곡 설명 곁들여 LA 신포니에타 콘서트 성황

LA 신포니에타(지휘 김용재) 콘서트가 20일 저녁 7시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콘서트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G장조,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했다.

그리고 첼리스트 나인히 씨와 박수정 씨가 비발디의 '두 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이번 연주는 LA신포니에타의 설

림 취지중 하나인 LA 한인들에게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의미로 열렸으며 연주가 시작되기 전 김용재 지휘자가 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관객들에게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LA 신포니에타는 지휘자 김용재를 주축으로 2010년에 창단돼, LA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소망사이버터 소망우물파기를 위해 조준 시인이후원금을 기증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기도회: 오전 6:30 EM, 대가족: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church.org</p>	<p>남가주주둔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www.mccsc.org</p>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교: 오전 11:20 영양회(월-금): 오전 11:2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복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환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월)새벽기도: 오후 6:00(월-토)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침례교: 오전 11: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회: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l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7:00(대가족)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E., L.A., CA 90006</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안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침례: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ier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stone.org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 침례교: 오전 10:00 영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5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한교총+한교연’ 한기연, 진통 끝 창립

46개 교단 참여, 상임회장단 집단 지도체제 운영

진통 끝에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창립됐다. 한기연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시 정관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이끄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한 한기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대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46개 교단이 참여한다.

한기연의 가장 큰 특징은 상임회장단이라는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상임회장단에서 추대한다. 법인은 한교연 법인을 활용한다.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이성희(

예장통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장,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이 공동대표회장을 맡아 통합 후속작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실무는 예장합동 통합 기감 예장합동개혁총무 4명이 공동으로 임시사무총장을 맡아 처리한다. 4명 중 연장자인 김장수 예장합동 총무가 임시사무총장 대표를 맡는다.

사무실은 편의상 김 총무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예장합동 총회본부를 활용한다. 한기연이 기존 한교연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과시킨 임시 정관대로 기존 한교연이 갖고 있던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오는 12월 초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18명의 상임

회장단을 조직하고 선거 없이 대표회장 1인을 추대한다. 한기연은 회원교단을 교회 수에 따라 5000개 초과 교단(가군), 1000개 초과~5000개 이하 교단(나군), 1000개 이하 교단(다군)으로 나누고 '가-나-가-나-가-다' 순으로 1년 임기의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한기연의 남은 과제는 법인이사회 정관변경 및 이사제제,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조직 인준, 직원승계 여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 문제다. 이 중 핵심은 한교연 법인이사회 정관변경이다. 한교연 법인이사회가 이사회를 개칭하고 임시로 통과시킨 정관을 바꾸면 한기연 법인이사회로 전환된다. 이사진은 정관에 기재된 절차에 따

라 추후 선임한다. 오는 24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한기연 동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오늘은 ‘네 손에서 풀이 하나가 되리라’는 에스겔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 뜻깊은 날”이라면서 “서로 신앙 색깔이 다르더라도 화합해 이념·사상을 뛰어넘는다면 이단과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설겅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도 “개혁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과정”이라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돼 감사하다. 한국교회 앞에 놓인 종교 사회적 과제 앞에 힘을 모아 대처하자”고 독려했다.

또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16만 명의 국내 체류 무슬림을 포함한 무슬림의 유입으로 인한 테러 등의 위협과 충남 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 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시·군 인권조례 문제 등의 대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도 다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하고, 전 명구(감리회 감독회장)목사와 신상범(기성 총회장), 이종승(예장 대신 총회장)목사 등 교단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씨는 ‘성경과 이단’ 2016년 2·3월호에서 “30년 전부터 예수 성탄하신 때는 4월 중순경이라고 설교했다”며 “4월 성탄절을 주장했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날 ‘성탄절이 지금도 4월 중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김씨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 물어보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

동성애 추가 헌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등 다뤄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회(총재 김성진 목사,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분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교회의 최대의 현안으로 부상한 헌법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성평등’ 포함 문제를 다룬다.

또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할 경우 발생하는 16만 명의 국내 체류 무슬림을 포함한 무슬림의 유입으로 인한 테러 등의 위협과 충남 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 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는 시·군 인권조례 문제 등의 대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도 다룬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설교하고, 전 명구(감리회 감독회장)목사와 신상범(기성 총회장), 이종승(예장 대신 총회장)목사 등 교단장들이 참석했다.

예장대신, 예장합동진리와 통합

3대 교단으로 발돋움…산하 교회 수 8500여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과 예장합동진리(총회장 조성훈 목사)가 통합해 교회 수 8500여개의 매머드 교단이 됐다. 교회 수로만 따지면 예장합동(1만1770개) 예장통합(8843개)에 이어 국내 3대 교단이다. 4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6344개)다.

양 교단은 21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교단통합 감사예배를 드리고 백석대의 설립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교단통합을 선포했다. 1000여개 교회에 소속된 예장합동진리 측 목회자들은 백석대 실천신대원에서 목회자 연장교육을 받는다.

장종현 백석대 설립자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130여년 만에 교회사 기록될 만한 영적 풍요를 누렸지만 장로교단만 200개 이상 분열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면서 “교단통합을 완수하고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조성훈 예장합동진리 총회장도 “이제 군소교단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통합의 물줄기에 적극 합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1978년 창립된 예장복음(현 예

또 소강석(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목사, 전용태(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영진(한국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로, 오종설(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남태섭(대구광역시교시협의회 대표회장) 목사 등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표(더민주기독인회 회장) 안상수(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조배숙(국민의당 기독인회 회장) 이상욱(바른정당 기독인회 회장), 국회개헌특위 위원 이철우(자유한국당) 김관영(국민의당), 국회법사위원 박지원(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긴급현안 보고회 뒤에는 국회정책위원회 이동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기독교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더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질의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며 “당시 4당 대선후보 모두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할랄도축장 반대 등을 밝혔다. 국회 보고회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3인 정견 발표회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 김노아 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갖고 3명의 후보자로부터 연합운동, 헌법개정안 문제, 목회자납세 등 한국교회 당면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엄기호(70) 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목사는 “대표회장이 되면 공동회장, 각 교단 총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이단 척결, 종교인 과세 등 대정부, 대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한기총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았다”면서 “그 경험 아래 한기총의 토대를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천(54) 서울 홀리씨즈교회

목사는 “한기총은 설립정신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당선되면 제일 먼저 대각성 구국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신상 및 주요공약	엄기호	서대천	김노아(김종일)
후보명	한기호	서대천	김노아(김종일)
소속 교단 및 추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예장합동, 교세발신교회	예장성서
이단성 의혹	없음	없음	있음, 예장통합 94회 총회서 ‘이단성 의혹’시 결정
한기연에 통합	한기총 중심으로 통합, 이단교단 복귀해야	한기총이 배제한 통합논의는 불가	통합논의의 시급성 인정, 이단교단 복귀해야
동성애 동성혼 합법개정안	절대 반대	국회 특스코프팀 구성에 임할지, 집단 결의 필요	절대 반대
이단문제	이단척결에 앞장설 것	성경적 진리 제시	신학적 척결에 앞장설 것
목회자 납세문제	자율납세	전환기 통해 대응	일률적인 과세는 반대, 자율적 납세 형성
통일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교회 복귀 주력	변화통일운동 적극 지원	

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한기총 아카데미 개최, 기독교 복지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탄절을 전후한 크리스마스 페스

티벌 개최와 대국민 사회회복운동 전개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노아(77)씨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표회장이 되면 정관을 손쉽게 고칠 수 없도록 3년간 정관을 연구하고 개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사이비 신천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한기총 내 권력 집 단 이 바리새인 처럼 자 만 심 과 자기우월 감에 빠 져 서 있다”면서 “이 들을 몰 아내고 약자인 중소형 교단을 보호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기총 회관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약속했다.

세 후보 모두 한국기독교연합(한

보수-진보 넘어 최초로 한자리에

국내 대표 신학회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대표 신학회들이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20-21일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준비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회 7개가 연합해서 500년 전 종교개혁 신앙을 오늘의 시각으로 어떻게 조명할지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진보 보수가 함께 학문적으로 토론하며 연합한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학회(노영삼 회장)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심상범 회장), 한국개혁신학회(김재성 회장)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이종승

대표회장)와 공동 주최한다. 여기에 한국루터학회(홍지훈 회장), 한국감리학회(박해경 회장), 한국웨슬리학회(김진두 회장), 한국장로교신학회(이승구 회장)가 함께하기로 했다.

대회 학술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규민 장신대 교수는 “신학이나 목회, 일상 모든 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며 “실제 해결방식은 서로 달라 도원뿌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 사상임을 확인하고 분열과 대립을 넘어 어떻게 연합과 일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출발은 2009년 칼뱅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승 목사는 “당시 장로교 신학자들이 모여 논문 100여편을 발표하고 기념대회를 치른 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장로교를 넘어 감리

교, 기장, 성결교, 오순절교단의 신학교 총장들을 초청해 토론하고, 이후 학회 회장들과 일일이 만나는 과정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수 준비위원회 총무는 “한국 사회가 종교, 이념, 지역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교회와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치유하는 길을 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주제 강연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존드루키시 명예교수다. 남아공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이자 세계적인 본회퍼 전문가로 유명하다. 대표작 ‘자유케 하는 조직신학’(예영)과 ‘본회퍼 신학개론’(중문화사)이 번역, 출간됐다.

인종차별 정책 ‘아파트헤이트’ 철폐에 앞장서는 등 사회 참여를 통해 남아공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경험과 탄탄한 신학 이론을 토대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말씀과 성령의 변혁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한국 루터대 리노 말테 교수가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발표한다. 독일

인인 그는 지난 25년간 한국에 살면서 루터대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쳐 왔다. 한국과 독일 사회 이해도가 높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학선언서’가 발표된다. 공동준비위원장 김재성 교수는 “종교개혁 신앙유산의 핵심은 윤리적 갱신이나 도덕적 부패를 새롭게 하는 표피적인 내용이 아니라 루터와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새롭게 제시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시킨 것”이라며 “신학선언서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를 위한, 세계교회를 향한 500주년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 외에 ‘종교개혁 전통에서 본 한국교회 개혁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총 13개 분과별로 3차례에 걸쳐 2편씩 논문 발표 시간도 갖는다. 공동준비위원장 심상범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린 예배를 한국예배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신학자와 목회자, 신학생과 일반 성도까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I와 인간 사이 빈 공간, 영성으로 채워라”

예장합동,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인공지능(AI)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이 예술과 종교의 영성입니다. 바로 미래사회 종교의 존재 이유는 A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영성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이이명 전 문화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의 역할을 이렇게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주최로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사전 제작한 영상 대담을 통해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류가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기도와 묵상으로 대화해 왔던 역사를 뒤바꿀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목사

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S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요소로 ‘영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교회가 인식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원 소장은 ‘미래 교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교회의 생존과 관련,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논길을 펼쳤다. 교인 수와 목회의 질이 모두 회복되거나, 질은 저하되고 교인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둘 다 감소하는 경우다.

최 소장은 “한국교회는 두 번째 나 세 번째 교회상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인 수와 목회의 질이 모두 향상될 가능성은 극히 낮

다”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미래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특히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방향을 정하고도 무물쭈물한다면 미래는 아득다”고 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말 발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로 드러난 개신교인 증가는 평균수명 연장 등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고령 개신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10-15년 뒤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오관을 경계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믿고 싶은 종교로 기독교를 꼽은 이는 44.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은 기독교라고 답한 비율은 25.8%로 3위에 그쳤다. 종교 생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0.4%가 ‘마음의 안식과 평안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교회학교 학생의 모태신

앙 비율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78.5%를 기록했다.

최 소장은 “실문결과를 보면 한국교회가 역점을 뒀어 할 분야는 교회학교에 투자하는 일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일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응답자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문항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좌담회에서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강점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씬 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물결인 만큼 이를 집중 개발해 내실을 다져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개신교 성장이 정체되고 S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까지 맞닥뜨린 한국교회의 미래 성장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장합동 총회가 주최했지만 교단을 초월한 1000명의 목회자와 성도, 신학생들이 참석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달 말부터 벌이고 있는 동성혼 개헌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일반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0여일 만에 무려 16만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오전 10시 현재 동반연이 인터넷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반인 서명자 수는 16만7300여명이 넘는다.

유교와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계와 300여개의 시민 및 사회단체는 지난달 27일 개헌을 통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동반연을 창립했다.

이들은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한 ‘양성 평등’에는 찬성하지만 사회학적인 성(젠더)에 기반한 ‘성 평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평등 속에는 동성결혼 및 동성애 등의 합법화가 내포돼 있으므로 개정 헌법에 양성 평등 대신 양성 평등이 대체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동반연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헌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동반연은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틀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따른 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개헌안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절대 침묵해선 안 된다. 반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27)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용서

팀이란 중년의 재소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따라 천주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원주민들이 믿는 종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원주민 여자를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원주민이 하는 정결 제사 의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팀은 전에 보지 못했던 환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과 비슷한 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제사 의식을 해준 원주민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팀이 그런 영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실은 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영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영들은 팀을 도와주는 영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팀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 여자의 말을 따랐는데 그때에 따라 그는 전에 없었던 혼란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영들을 볼 때마다 겁에 질린 그는 이리다 정신 이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여자는 팀이 혼란에 빠진 것은 그가 오히려 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팀에게 자만심과 교만을 불러 넣었습니다. 팀은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원주민 여자의 말을 들은 그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팀을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에야 왜 자신이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영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제사 의식 전에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그런 혼란과 마음의 고통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으며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던 영들이 차차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를 영적인 혼동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가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출감하기 일주일 전에 교도소 목사와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팀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이 원주민이며 그들의 제사 의식을 치렀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 빠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 안에 악한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왜 우리가 고통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설명하며 그에게 12개의 고통의 문중에서 그가 열어 놓은 문은 어떤 문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12개의 고통의 문: (1)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끔 하는 문 (2)환영이나 환상을 보게 하는 마귀의 문 (3)음성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 (4)악몽으로 고통을 주는 문 (5)과거의 충격이 기억 속에 다시 떠오름 (6)상심, 상실, 트라우마 (7)중독에 빠져 사는 삶 (8) 분노의 문 (9)혼동의 문 (10)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문 (11)교도소 투옥 (12)우상숭배의 문입니다.

팀을 자기에게 분노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의 대상을 용서함으로 분노에서 빠져나와 열려 있는 문을 닫지 않으려 더 많은 고통의 문들이 계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으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므로 팀에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과 또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고통의 문을 닫아주시도록 간구하여 평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팀은 기도가 끝난 후, 교도소를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셨다며 주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8-9).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eonghui.mcdonald@gmail.com

러시아 개신교 선교사역 빨간불 '반선교법' 실시 1년...러시아정교회 견제가 주 원인?

러시아의 개신교 선교 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후 1년이 지나면서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마주하는 선교 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 6일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를 막는다.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전도할 자유는 금해 '반선교법'(Anti-Missionary Law)으로도 불린다.

국민일보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한별 목사)가 러시아 노보시베르스크 나자레교회에서 진행한 한국·러시아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성회에 동행 취재한 국민일보가 18일 현지에서 러시아가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만나 테러방지법 이후 러시아 선교 현황을 듣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하루시카(서부 시베리아 오순절교회연합 노회장) 목사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개신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현재 테러방지법을 위반해 진행 중인 소송이 100건을 넘는데 대부분 개신교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나 자료, 전도지 등에 교회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거나 정부 허가 도장을 받지 않은 게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며 "소비에트 연방 시절 받던 압박만큼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교회들이 테러방지법 잘 지키고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정교회(정교회)의 막강한 영향력과 견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2014년 2월 정교회 신자가 급증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1991년 까지 정교회 신자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31%정도였으나 2008년이 되면서 72%까지 늘었다. 개신교와 카톨릭, 이슬람 등 종교의 인구는 90년대에 급증했으나 2000년대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정교회의 압력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보시베르스크에서 24년째 사역 중인 김노아(성 바울신학교) 선교사는 "러시아정교회는 개신교를 이단 시하며 심하게 배척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 공식행사가 있을 때 행정·사법·입법부의 3부 요인과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정교회 영향력이 크다"고 전했다.

하루시카 목사는 "테러방지법을 준수해 전도지를 배포했는데도 러시아정교회 신자들이 골탕 먹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경찰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개신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슈타코브 예브게니(반석위에 교회) 목사도 "최근 교회를 짓고 있는데 러시아정교회 신부가 정부기관에 이단이라며 신고해 난감했던 적이 있었다"며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개신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중에 러시아정교회 관련 건은 거의 없다. 노르웨이 매체인 '포럼18'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기록된 186건의 소송에서 개신교는 6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증인이 41건, 침례교가

28건을 기록했고 나머지 57건은 기독교 이단 분파와 이슬람, 불교였다. 이중 러시아정교회와 관련된 소송 건수는 단 한 건이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정교회 신자 비율이 70%를 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불균형한 결과다.

테러방지법은 러시아로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 지난 1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 독립침례교단 선교사인 도널드 오스왈드 목사가 지난해 8월 러시아 오스왈드(Oryol)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명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오스왈드 목사는 테러방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4만 루블(약 80만원)을 내야했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음 전도지 두 장을 아파트 복도 게시판에 붙인 혐의로 기소 당했다"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테러방지법은 단체나 조직 명칭, 주소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선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책이나 전도지 같은 출력물, 음향물이나 시각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안전하게 적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도 처벌 받는다. 러시아인의 선교행위도 처벌한다. 외국인의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라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또 거주지에서 모든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러시아 종교당국에서 지급하는 공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인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엔 최소 75달러에서 최대 765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교회나 단체 같은 기관의 경우엔 최대 1만5265달러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E)는 러시아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제한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USCIRE는 지난 4월 보고서를 발표해 러시아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CPC)로 지정했다. CPC로 지정되면 미국 의회와 정부로부터 외교·무역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장총 '2020년 빌리그레이엄 서울 전도대회' 논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임원들이 18일 세계성서공회 총재 로버트 컨빌 박사와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임원과 조찬 모임에서 2020년 빌리 그레이엄 서울 전도대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교회 부흥 방안을 모색했다.

한장총 대표로 참석한 상임회장 유중현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장로교가 10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집회의 활성화와 뜨거운 기도운동의 결과"라며 "오늘날 내태해진 점이 문제인데, 재

부흥의 계기가 될 2020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계성서공회 총재인 로버트 컨빌 박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뉴욕집회에서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한국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해 받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에게 더욱 힘을 얻게 하는 집회가 되도록

협력력을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장총 부회장 오지용 목사가 한장총 연혁 및 현황을 소개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대령 포비스 목사는 "2020년 빌리 그레이엄 한국대회의 이벤트적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지혜와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 한장총에서 부회장 송태섭 김수용 목사, 총무 이재형 목사, 사무총장 김병일 목사 등도 참석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는 한국 사역자 김조 씨, 전도대회 기술감독 마크 로버츠 등도 함께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말)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Fax: (704)522-0900 2 Main St., Hpl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2-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s.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p>	<p>앵커리지영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엘파소영문교회 담임목사: 박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15)542-0288,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루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cmcr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자 코너 (1)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나의 간증을 해야 하는 이유

딤후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지난 2년 이상 내 생애에 가장 무서운 질병과 싸움을 하여왔다. 물론 내가 싸운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의 싸움을 싸워 주셨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갑작스레 발견한 병명은 치료가 어렵기로 유명한 폐암 말기이었다.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이 다 암세포가 쫓을 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의 문을 여러 차례 열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잘 지내고 있다. 다 완쾌된 것은 아니라 병이 통제되었다가 또 약에 내성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up and down을 지금도 경험한다. 지금도 매우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남을 체험하고 있다.

삼태가 다시 악화되어 마침내 약물치료를 받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다. 아프기 전에는 운동하지 않고 지내다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 2마일 이상 트레드 밀에서 걸었다. 하지만 이것도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안을 거닐면서 기도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면 제가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늘 드려온 기도이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비쳤다. “아들아, 내가 계속 너를 앞으로도 지켜 줄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았나? 그것부터 나누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나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이미 준 은혜를 간증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새삼 충격적이고 도전이었다. 고민에 빠졌다. 성도들에게 생활의 간증을 하라고 말하면서 나의 간증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에게는 나누지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모르는 이야기 많이 때문이다.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간증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받은 은혜부터 나누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그 것도 그 마지막을 사는 나로서 주신 시간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미 주신 은혜부터 나누어야 되겠다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 속에서 미래에 주실 은총들을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임을 믿는다. 나의 삶을 더 나누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면서 제자훈련을 하셨던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나와 같은 혹은 비슷한 인생의 계절을 지나는 동지 순례자들이 서로 제공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내가 받은 것은 너무도 너무 많은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나의 고통 속에서의 투쟁과 자신과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그대로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스며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앙망한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조심스럽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의 보따리들을 풀고자 한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저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할 지는 나도 모른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결코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혹은 나의 고통과 실패를 나눔으로 동정이나 연민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투병하면서 혹은 그 이전에 나의 삶에 주신 은총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크심과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극한 병 중에서 쓰는 글이기에 부족할 점이 많아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한다. 주님이 나를 더욱 겸손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선교 편지

온두라스

[편집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여름 단기선교팀들이 다녀온 온두라스에서 온 선교편지를 소개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퀸즈장로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여름은 다른 해보다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달리 장거리 이동하는 단기선교가 많았고 동시에 선교관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8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올 여름 단기선교가 끝나고 이번 주에 새학기 시작 준비를 거쳐서 8월 21일부터 한해 농사 새하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단기선교에는 퀸즈장로교회 청, 장년팀과 실버단기선교팀이 연이어 사역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청, 장년팀은 이명옥전도사님께서 워낙에 잘 준비하시고 해마다 올라가는 산동네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해주셔서 산동네 학교 아이들이 많은 사랑과 기쁨을 듬뿍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열악한 산동네 아이들의 집과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격려를 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속으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전도팀을 맞이하여 주고 복음에 귀 기울이며 헌제처럼 대하여 주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평소 학생들만 보다가 그들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학생들의 부모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머느리 되는 한 자매가 많이 늘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선교팀을 찾아와서 집으로 초청

하여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매 사역마다 최선을 다하시



는 모습에 그리고 휴식하는 시간에도 상관없이 복음전도에 열심하신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 장년 선교팀과 사역하면서 한편으로 기대반 걱정반 하면서 이어서 오실 실버선교팀으로 인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연령이 70세 가까이 되신다는 소식이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하면서 어떠한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공항에 나가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을 나오시는 모습이 한 주전에 오셨던 청, 장년팀보다 훨씬 활기차시고(?)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에 제가 잠시 정신 줄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걱정이 된 것은 유일한 청일점인 장로님이 힘들어 하시거나 외로워(?)하시까 걱정되었는데 모든 권사님

들을 섬기시고 모든 집들을 손수 옮기시며 모든 권사님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모습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장로님의 기사도 정신에 감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고전 무용으로 표현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스페니시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도하시는 모습에는 선교사인 제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이었

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와 찬양을 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마치고 심의례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저녁 기도시간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온 마음 다해 선교지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청, 장년팀과 실버팀의 든든한 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온두라스를 생각하시고 팀을 파송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해외 선교 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두라스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두라스에서 복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뿌려놓은 씨앗을 이곳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재목들이 되어서 온두라스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온두라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이도철 선교사 드림

<4면에서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그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도 온유로 대하여 여호와와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고 자기가 차라리 당하고 말았으며 특히 사울이 죽었을 때 통분히 여겨, 여느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온유한 자로 그 가족의 아픔에 지극한 슬픔으로 같이 하였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작은 성 헤브론에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유익에 초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 응답을 받고 적군에 대적하여 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미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었고 기회가 충분히 왔기에 세상 왕들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 위용을 위하여 그리고 왕권 확립의 과시적 행동으로 맘대로 주위를 칼로 정복하며 재빠르게 행동하려 하였으며 큰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서둘렀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자기의 유익에 죽고 자기 절제가 뛰어나며 겸손의 행동이 계속되므로 그는 자손만대 복 받으며 지경을 넓히고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온 세상을 땅으로 차지하였다.

여러해 전에 월간목회에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성도들은 당연히 설교라고 대답한 반면 목회자 자신들은 대

인관계라고 대답하였다. 무슨 뜻인가? 본문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란 말이 아닐까?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온유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리더십, 이는 제는 우리의 생활화하여야 하게 될 때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나는 칼로 유럽을 정복하였으나 사람을 얻는데 실패하였어도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였다고 탄식하며 인정하였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바를 가슴깊이 새기며 참된 리더십을 다시 생각하자. 온유면 되는 것이다.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다섯 명의 컴퓨터 전문가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서 컴퓨터 강습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려가다가 그중 한명이 그만 사고 좌판을 치고도 너무 급한 나머지 수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차 정류장으로 뛰고 또 뛰었다. 다섯이 같이 달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서더니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좌판으로 돌아갔다. 우리 와이프에게 급한 일이 있어 일을 보고 다음 기차를

타고 세 시간 후에 집에 도착한다고 말하여주게...

급히 다시 달려가 보니 좌판에서 사고 여러개가 나뉘어져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 쫓아 봉투에 담고 주인 침대 옆에이게다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20불을 사과값으로 지불하려고보니 그는 맹인이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좌판을 펴고 사과를 팔고 있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사과하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아저씨가 예수님 맞지요?”라고 말하였다.

누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누가 그의 마음을 얻었는가?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나의 유익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도 남의 유익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다. 우리에게 필요 절실한 리더십이다.

‘고객 만족의 시대’가 지나가고 ‘고객 감동의 시대’라고 캠페인을 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떻게 온유를 실천하고 있는가? 온유가 진정한 대답이다. 참된 리더십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는 얼마나 뛰고 있나? 온유가 해답이다. 리더십은 바로 해결된다.

revskna@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2)말씀생활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두고 읽지 않았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박국이라고 할 때 필자는 '하박국'으로 알았고 히브리어를 찾아 읽자고 할 때 '히브리어'는 구약 같아서 구약성경을 뒤적이며 찾은 정도였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 더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 계속 읽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QT)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다. 말씀은 능력이요, 무기로, 위로요, 갑옷이 되는 등불이요, 축복이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필자는 목사님의 '에제르'로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였고 아마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3)전도생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목사 사모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 웬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령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의 사역이나 교회의 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로 변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대접 받으려는 삶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필자는 아직도 배우고 훈련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목사님들은 계속 공부하며 배우며 성장하기 때문에 사모도 함께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본다.

8)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물론 나 자신과의 화평, 그리고 사랑하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기고 목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4:6).

10)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낫지 않고 심한 고통을 주며 필자를 괴롭혔던 신경성 위궤양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성령세례를 받은 후 필자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다. 성령세례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BC(주전 Before Christ)와 AD(주후 Anno Domini)로 나누어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9. 성령충만함을 받는 비결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이 다럽고 거저된 것, 죄 된 것들로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 더러운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압살롬의 기뻐하라 일컫더라(삼하18:15-18)**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노새를 타며 왕 행세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마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고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있다가 창에 비참하게 찢려 죽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비석이 오히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수치의 비석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화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삼하18:14-20)**
본문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주요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내그리 대접하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압살롬을 보는 즉시 죽여 버렸습니다. 요압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는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뻐비를 쌓는 사람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돼야 다른 일이 다 잘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 옆에서 매일 충성한다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요압은 꼭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도는 사랑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늘 살리고 소망을 주고 축복하고 잘되기를 베풀는 사람들이 성도의 기본자세입니다.

수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삼하18:21-32)**
본문은 압살롬의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구스사람입니다. 구스사람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고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다윗 왕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독의 아들 아히아사스를 보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좋지 않은 소식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구스사람보다 뒤에 갔는데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평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압살롬 소식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은 빨리 전하고 나쁜 소식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전해야 합니다.

목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리나라(삼하18:33)**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심히 마음이 아파서 읊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슬퍼서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활노래를 불러 애도해 합니다. 오히려 좋은 점만 생각하며 사울왕을 높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

동시키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될 때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망연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도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오늘 상대방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금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삼하19:1-4)**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심복들과 백성들까지도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 슬퍼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 섞인 충고를

함으로써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흐트러졌던 나라를 재정비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삼하19:5-7)**
요압의 말은 사람 없는 충고같이 들립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험박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충고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좋은 충고를 하되 좀 부드럽게 사랑을 갖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결국 상처를 받기 때문에 늘 유유한 심정으로 충고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늘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좀 거칠게 말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유유한 마음으로 충고할 때 서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6)



이희숙 사모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전도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겨우 "교회에 나오세요"하는 정도였다. 필자는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이 제일 겁이 났다.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라고 하면 혹시나 필자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 영혼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6)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처서 굴복시키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전에는 자아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사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승리하는 사모가 되려면 자신이 많이 죽어야 한다. 아니,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외친 것이다.

7)날마다 배우며 훈련하며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의 분열과 사모의 사랑과 정체성 그리고 사모의 위치와 본분 등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거저된 것, 죄 된 것들로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다. 더러운 모든 죄 된 일과 악한 일들을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남편과 자녀들과의 화평의 관계, 성도들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평화를 누리는 자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변화되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9)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많은 경우 남편의 목회 사역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다. 남편을 응원하고 돕는 '에제르' 대신 오히려 남편의 힘을 빼고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꿈과 비전도 없고 의욕이나 열정도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에 어찌 생명력이 있었는가?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사모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자신이 변화를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편 목사를 힘 있게 내조한다면 그 목회 사역은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목장이 될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것이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의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외부적으로

모든 죄 된 일과 악한 일들을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또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셨다(욥2:28-29).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것을 약속하셨다(요14:16-17).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성령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고 간구해야 한다.

10. 계속적인 성령충만을 유지하는 삶
성령은 한번 충만함을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것이 아니다. 계속 충만하도록 소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요일1:9).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늘 사모하며 그의 뜻에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해야 한다.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엡 4:30),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살전5:19).

hslee39@sbcgloba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잠실동)</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008, 팩스(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잠실동)</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신촌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2)926-926-4508, Fax. 926-4508 서울시 용산구 안암동 50-1</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신안구 월영로 415</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특별기고



배현찬 목사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살롯츠빌 폭동 사태를 보면서

“목사님 계신 곳은 어때요?” “손녀가 UVA(University of Virginia)에 입학해서 며칠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미국의 여러 도시와 멀리 한국에서까지 샬롯츠빌(Charlottesville, VA)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을 보고 안부를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다. 오늘 아침 마이애미의 한 지인으로 부터 염려스러운 질문을 받고 자세한 배경 설명과 현지 소식을 전해 주면서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14일) 이곳에서 한 시간 떨어진 그 도시를 방문하고 온 다음 화요일 오후 대통령의 사저(Trump Tower)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고 여러 언론에서 뜨거운 감론을 벌이는 모습을 몇 시간에 걸쳐 본 다음이라 더욱 마음이 간절해서이다.

인구 4,700여명의 산골 소도시이면서 주위의 몇 풍요로운 카운티와 더불어 약 15만의 경제 인구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샬롯츠빌은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은퇴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왔다. 도시 뒤를 등지고 있는 유명한 블루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s)의 아팔라치안 산맥과 도시 앞 산봉우리에 우뚝 선 건국의 아버지 독립선언문 작성자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몬티셀로(Monticello)를 앞뒤로 두고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UVA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명문 주립대 가운데 하나로, 지역 사회는 이 대학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의 고풍스런 흔적을 담은 다운타운

의 올드 히스토리타운(old historic town)과 인근의 옛 법원 건물과 맞닿아 있는, 남북 전쟁 당시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Robert Lee) 장군 동상이 바로 이번 폭동의 문제 발단이다. 전쟁 후 남북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 리 장군의 동상을 인종주의적인 남부연합군(Confederate Army)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 동상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KKK에서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준비를 한 데모대와 또 이 데모를 반대한 그룹과의 충돌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인종차별주의(Racism)가 이번 폭동의 핵심이다.

지난 10여년 오바마 대통령 정치 하에서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화이트 내셔널리스트(White Nationalist)들이 공공연히 그들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새 정권의 이민 정책을 옹호하면서 편협한 국가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가치관으로 포장한 KKK와 네오-나치(Neo-Nazi)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시대적인 흐름을 이용하여 인종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극 우향적인(All-Right) 편향적 태도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에서 들어났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고체계가 그대로 들어난, 지난 화요일의 회견은 미국을 극단적인 두 진영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정략적 태도로 인종차별(Racism)의 고질적인 병을 안고 있는 미국에 다시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다.

앞으로 미국 사회는 이 사건을 두고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면서, 역사 발전의 정치 사회적 장애물을 어떻게 걷어내고,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나아가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색과 가치관으로 공화당 주었던 800만의 버지니아가 최근에 선출된 민주당 지지자와 함께 점점 더 민주당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워싱턴 인근 지역과 샬롯츠빌 같은 대학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지니아 중소도시(Richmond, Virginia Beach, Norfolk 등)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진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아직도 버지니아 농촌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나 앞마당에 남부 연방기를 나무끼면서, 남북전쟁 당시의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연방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샬롯츠빌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80% 가까운 주민들이 민주당의 클린턴을 지지했다. 대통령의 이번 사건 이해와 함께 드러난 정치적 태도와 계산의 속내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KKK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수 천명의 데모대는 샬롯츠빌 시민들과의 의식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들어낸 가운데 이러한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의 아들은 UVA를 졸업하였고, 딸은 샬롯츠빌 다운타운 인근에 자리 잡은 150년 된 전통적인 백인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번 일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결국 뜻밖의 폭동으로 변진 일어난 건의 피해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쫓겨난 32살의 젊은 여성과 함께, 이번 폭동을 진압하는데 출동했던, 주정부 헬리콥터의 추락으로 두 사람의 파일럿이 어이없게 희생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헬기 조종사였던 주정부 경찰관들(Berke M. M. Bates, 40, H. Jay Cullen, 48)은 주정부 경찰관으로 20여년을 근무하면서 경찰 간부로 헬기를 몰다 참사를 당했는데, 한 사람(Lieutenant Cullen) 가족은 필자가 시무하는 리치몬드의 미드로티안(Midlothian)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의 인종 화합을 위해서

20여 년간 빈민가의 흑인 목사와 손잡고 10회의 인종화합 합창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를 하면서 한, 흑, 백, 히스패닉 회중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해오고 있다. 오래전 지역 CBS-TV에서 여러 차례 흑인 지도자와 대담하면서 한흑 간의 인종화합이 한, 흑, 백 모두에게 평화로운 지역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소수 인종으로서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20여년 전에는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버지니아 주의회 개회기도를 하면서, 인종화합을 도모하는 소수 민족의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 Justice)라는 명제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더 깊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종적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목회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종 폭동과 같은 테러나 살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필자와 회중은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민자로서의 우리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적 사명을 되새겨 보는 것이다.

샬롯츠빌 인근의 버지니아 주 도시인 리치몬드(Richmond)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9월에 예정되었던 리치몬드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앞에서의 반대집회 시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행사 주관자는 공표하였다. 남북 전쟁 당시의 남부의 수도였던 리치몬드 시 중앙(Monument Ave)에 자리 잡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야말로 가장 상징적이며 웅장한 조형물이다. 그동안 이 동상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

해의 논쟁이 많았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화로운 시위와 대응을 염두에 둔 노력을 하고 있다.

인종화합을 위하여 북을 울리다, 순교의 피를 흘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 철학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할 때 ‘비폭력 철학(Non-violence Resistance)’으로 흑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면서, 백인들과 함께 ‘인류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숭고한 삶과 지도력이 오늘의 미국이 되게끔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아직도 그 뿌리를 뽑지 못한 채 정치적 정략과 경제적 이해에 따라 사회는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미국 사회는 갈등과 무질서를 극복하면서 점점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가리라고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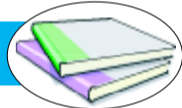
평화로운 산골 도시이지만 수준 높은 대학 문화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원성이 들려온다. ‘샬롯츠빌 이름이 이처럼 잘못 알려져 안타깝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온 데모대는 다 돌아갔고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미국이 킹의 말처럼, “정의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평등(Equality), 질서(Order), 자유(Freedom)를 추구하는 정의의 요소는 반드시 역사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믿는다. 이번 샬롯츠빌 폭동을 통하여 뼈아픈 현실적 교훈을 얻음으로 헛되지 않는 정치 사회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hyunchanbae@hotmail.com



새책소개



시집 “안개꽃(Gypsophila)”

저자 박인혜

뉴저지에 거주하는 박인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안개꽃(Gypsophila)”을 소개한다. 영어와 그림이 함께 삽입된 이 시집은 저자가 “세계인과 소통하고 싶어서” 택한 방법이다.

영어번역은 아들이 맡았다. 박 시인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컸

다”며 “또한 아들에게도 문학적 소질이 있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에 이번 영어 번역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아들이 엄마의 내적인 면을 잘 이해함으로써 더욱 아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한국시에 대한 감각과 정서를 외국인에게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그림은 박 시인의 스승 전규태 박사의 그림

으로 전 박사는 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문학평론가로 하버드대학, 콜럼비아대학, 시드니대학의 객원교수, 호주국립대에서는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신 바 있다.

전규태 박사는 발문에서 박인혜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실현하고 싶은 꿈이나 사상적 인 또는 추상성을 띤 아프리카 같은 실험, 서로 다른 영역을 연백시 키려 든다”고 표현했다.

또 신약적인 고향을 동경하고“

한글과 영어, 그림이 함께 감정의 진실 담아

하늘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각별하다(“고향생각”)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실의 풍광이나 전달보다 느낌을 퍼내어 감정의 진실을 담았다”며, 자칫 신앙시가 갖기 쉬운 잠언적 표현으로 흐른 점이 없

지 않지만 이를 잘 체화(體化)해서 시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했다. 책은 1장 하늘로 노저어(Row To The Sky), 2장 구름도 바다를 보고(Cloud Is Seeing Sea), 3장 숲 속 작은 꽃(Small Flower in Forest),

4장 물결 위 홀로 떠(On Stream Floating Alone) 하에 각 장마다 각각 10편의 시를 실어 총 40편이 수록됐다.

“시적 분위기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밝힌 전규태 박사의 말처럼, 시에 맞춰 어우러진 그림이 독자들에게 더한 감동을 준

다. 박인혜 시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주미주크리스천문학회가 협회, 한국문인선교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넌 생각하면 왜 비가 내릴까”, “하늘이 내게로 왔다” 등 3권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다수의 전자시집도 발간했다.

책 가격은 15달러. 저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저자 연락처: inhye1026@hanmail.net (201)745-1788 (유원정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익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